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분석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노동시장 공급 기반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2025년 1,373만 명)의 인구·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진행 중임
- 경기도는 남부(지식기반 서비스·제조업)와 북부(제조업·생활서비스) 간 산업구조 차이가 뚜렷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경기도 여성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여성 인구 특성, 노동시장 구조 특성 및 여성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분석 결과

- 경기도 여성 인구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여성 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비혼화·고학력화·저출생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인구구조 측면에서 2025년 여성 인구는 683만 명이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16년 73.1%에서 2025년 69.5%로 감소함. 이는 남성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향후 여성 노동공급 기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20대 이하 청년층 감소와 70대 이상 고령층의 여성 비중 확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혼인·학력구조 측면에서 미혼 여성은 2016년 130만 명에서 2025년 157만 명으로 20.5% 증가해 전국(10.1%)의 두 배 수준이며, 4년제 대졸 여성은 42.7%, 석사 49.9%, 박사 67.8% 증가하는 등 고학력화도 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가구 특성 측면에서는 영유아(0~5세) 가구가 56만에서 39만으로 30.5% 감소하고, 2자녀(40.0%)·3자녀 이상(50.5%) 가구의 급감 속에 1자녀 가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폭(16.0%)이 작아 1자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경기도 노동시장 구조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노동시장은 서비스업 중심 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기반도 유지되고 있음.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으나, 여성 취업은 여전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 돌봄·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고부가가치 산업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성 집중 산업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빈 일자리와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어 산업별 일자리의 질적 격차가 확인됨. 또한 여성의 생활권 중심 통근 특성이 나타나 지역 기반 취업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남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여성 취업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업에서는 높은 증가세가 확인됨. 반면 북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생활서비스업 중심의 여성 취업 구조를 보임

- 경기도 여성 일자리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여성의 고용률은 전국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임. 특히 전문가·사무직 중심의 취업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는 여성 취업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돌봄·서비스업 중심의 취업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또한, 해당 업종에서는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 등 고용의 질적 격차가 확인됨
- 고용형태 측면에서는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로 안정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경력단절 사유가 육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근로지속과 경력 유지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여성의 생활권 중심 통근 특성도 확인되어 돌봄 부담이 노동시장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함
 - 첫째, 취업 확대에서 지속근로·경력형성 중심으로 전환 필요
 -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설계
 - 셋째, 생활권 중심 지역 기반 일자리 발굴
 - 넷째, 여성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운영방식 개선 필요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분석

CONTENTS

I. 서론	1
II. 경기도 여성 인구 특성	5
III. 경기도 노동시장 구조 특성	23
IV. 경기도 여성 일자리	63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9
참고문헌	103

표 목차

〈표 2-1〉 경기도 연령별 인구현황	8
〈표 2-2〉 경기 지역 평균연령 현황	9
〈표 2-3〉 여성 혼인상태별 현황	12
〈표 2-4〉 여성 학력 현황	15
〈표 2-5〉 영유아 자녀수별 가구 현황	17
〈표 2-6〉 영유아 인구 현황	18
〈표 2-7〉 미성년 자녀 가구 현황	19
〈표 3-1〉 경기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6
〈표 3-2〉 경기도 산업별 사업체 현황: 전체	28
〈표 3-3〉 경기도 산업별 사업체 현황: 남·북부	30
〈표 3-4〉 산업별 종사자 현황: 전체	33
〈표 3-5〉 산업별 종사자 현황: 남·북부	35
〈표 3-6〉 산업별 성별 종사자 현황: 전체	38
〈표 3-7〉 산업별 성별 종사자 현황: 남·북부	40
〈표 3-8〉 경기도 종사자 현황	43
〈표 3-9〉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 전체	44
〈표 3-10〉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 남·북부	46
〈표 3-11〉 직종별 여성 취업자 현황: 전체	49
〈표 3-12〉 직종별 여성 취업자 현황: 남·북부	51
〈표 3-13〉 빈 일자리 현황	55
〈표 3-14〉 경기도 출퇴근 현황	58
〈표 4-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6
〈표 4-2〉 여성 고용률	67
〈표 4-3〉 여성 취업자	68
〈표 4-4〉 경력단절여성 현황	69
〈표 4-5〉 경력단절 사유	70
〈표 4-6〉 경기도 여성 월평균 임금	72
〈표 4-7〉 경기도 여성 산업별 월평균 임금	75
〈표 4-8〉 경기도 여성 직종별 월평균 임금	79
〈표 4-9〉 경기도 여성 평균 근로시간	83
〈표 4-10〉 경기도 여성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86
〈표 4-11〉 경기도 여성 직종별 평균 근로시간	90
〈표 4-12〉 경기도 여성 고용형태	94

그림 목차

[그림 2-1] 경기도 연령별 인구현황	8
[그림 2-2] 경기도 시군 연령별 인구현황	9
[그림 2-3] 경기도 시군별 여성 혼인상태별 현황	13
[그림 2-4] 여성 학력 현황	16
[그림 2-5] 시군별 미성년 자녀 가구 현황(2024년)	20
[그림 3-1] 2023년 경기도 시군별 사업체 현황	31
[그림 3-2] 2023년 경기도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	36
[그림 3-3] 2023년 경기도 성별 종사자 현황	41
[그림 3-4] 시군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2025년)	47
[그림 3-5] 2025년 직종별 여성 취업자 현황: 시군	52
[그림 3-6] 시군별 빈 일자리 현황	56
[그림 3-7] 시군 산업별 여성 출퇴근 현황(2025년)	59
[그림 4-1] 시군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6
[그림 4-2] 시군별 여성 고용률	67
[그림 4-3] 시군별 여성 취업자	68
[그림 4-4] 경기 북부 및 남부 여성 월평균 임금	72
[그림 4-5] 시군 연령별 여성 월평균 임금(2025년)	73
[그림 4-6] 경기 북부 및 남부 산업별 여성 월평균 임금	76
[그림 4-7] 경기도 시군 여성 산업별 월평균 임금	77
[그림 4-8] 경기 북부 및 남부 직종별 여성 월평균 임금	79
[그림 4-9] 경기도 시군 여성 직종별 월평균 임금	80
[그림 4-10] 경기 북부 및 남부 여성 평균 근로시간	83
[그림 4-11] 시군 연령별 여성 평균 근로시간(2025년)	84
[그림 4-12] 경기 북부 및 남부 여성 산업별 근로시간	87
[그림 4-13] 경기도 시군 여성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88
[그림 4-14] 경기 북부 및 남부 직종별 여성 평균근로시간	90
[그림 4-15] 경기도 시군별 여성 직종별 평균 근로시간	91
[그림 4-16] 경기 북부 및 남부 여성 고용형태(2025년)	94
[그림 4-17] 경기도 시군별 여성 취업자 고용형태	95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분석

I. 서론

1. 서론

-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 시장 공급 기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 규모와 산업별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산업별 인력 부족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인력의 활용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보유한 지역으로,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인구는 2016년 1,271만 명에서 2025년 1,373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74.4%에서 7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여성 인구는 68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 여성과 고학력 여성의 증가 등 여성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력단절, 산업 및 직종 분리, 임금 격차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청년 여성 인구 감소, 고학력 여성 증가 등 여성 인력의 특성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여성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한편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간 산업구조 및 인구구성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부는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북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노동시장 규모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권역별 산업구조와 고용여건의 차이는 여성 취업 기회와 고용구조에도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 일자리 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여성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일자리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여성의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 특성 등 인구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노동시장 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경기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여 지역별 차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분석

II. 경기도 여성 인구 특성

2. 경기도 여성 인구 특성

가. 경기도 및 여성 인구구조 특성

- 경기도 전체 인구는 2016년 1,271만 명에서 2025년 1,373만 명으로 약 101만 명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적 증가와 함께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은 2016년 74.4%에서 2025년 71.0%로 감소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5.6%에서 72.4%로, 여성은 73.1%에서 69.5%로 각각 하락하여 여성의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 여성 인구 특성의 경우, 2025년 기준 68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수준을 차지하며 남성(689만 명)과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여성 인구가 가장 큰 규모를 보이며, 30대와 50대 역시 주요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세 여성 인구는 32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구 감소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게 나타나 여성의 고령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도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20~24세와 35~49세 연령층에서는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25~34세 연령층은 증가한 반면 35~49세 연령층은 감소하여 연령대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한편, 50대 이상 인구의 확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진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기도의 인구구조가 중장년층 및 고령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경기도 인구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연령인구 비중 2016년 74.4%에서 2025년 71.0%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3.1%에서 69.5%로 하락하여 남성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노동시장 공급구조 변화와 함께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정책 및 고령 여성 인구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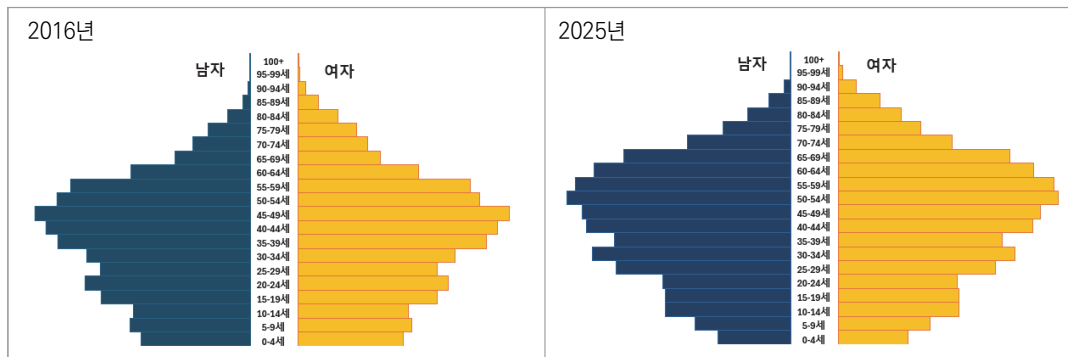
<표 2-1> 경기도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25		
	총인구수 (명)	남자인구수 (명)	여자인구수 (명)	총인구수 (명)	남자인구수 (명)	여자인구수 (명)
계	12,716,780	6,395,453	6,321,327	13,730,135	6,894,990	6,835,145
0 - 4세	598,082	306,180	291,902	384,411	197,058	187,353
5 - 9세	653,028	335,354	317,674	505,554	258,639	246,915
10 - 14세	634,739	327,563	307,176	663,714	338,834	324,880
15 - 19세	804,776	416,884	387,892	662,787	338,850	323,937
20 - 24세	881,482	462,233	419,249	663,926	344,363	319,563
25 - 29세	805,768	419,179	386,589	893,678	470,307	423,371
30 - 34세	892,726	456,660	436,066	1,008,733	534,519	474,214
35 - 39세	1,063,220	537,593	525,627	916,714	475,008	441,706
40 - 44세	1,124,294	570,199	554,095	1,075,552	551,469	524,083
45 - 49세	1,188,236	599,566	588,670	1,107,915	563,356	544,559
50 - 54세	1,044,815	539,884	504,931	1,196,380	604,787	591,593
55 - 59세	981,143	501,280	479,863	1,159,589	580,254	579,335
60 - 64세	669,996	333,990	336,006	1,056,988	531,263	525,725
65 - 69세	440,224	211,457	228,767	910,759	450,372	460,387
70 - 74세	357,143	162,468	194,675	584,546	278,472	306,074
75 - 79세	283,006	119,014	163,992	403,664	182,188	221,476
80 - 84세	175,095	63,487	111,608	285,890	116,400	169,490
85 - 89세	80,245	22,835	57,410	168,675	58,331	110,344
90 - 94세	28,395	6,977	21,418	64,109	17,254	46,855
95 - 99세	7,062	1,774	5,288	14,512	2,860	11,652
100+	3,305	876	2,429	2,039	406	1,633
생산연령인구	9,456,456	4,837,468	4,618,988	9,742,262	4,994,176	4,748,086
생산연령인구 비중(%)	74.4	75.6	73.1	71.0	72.4	69.5

자료: 주민등록인구

[그림 2-1] 경기도 연령별 인구현황



자료: 주민등록인구

〈표 2-2〉 경기 지역 평균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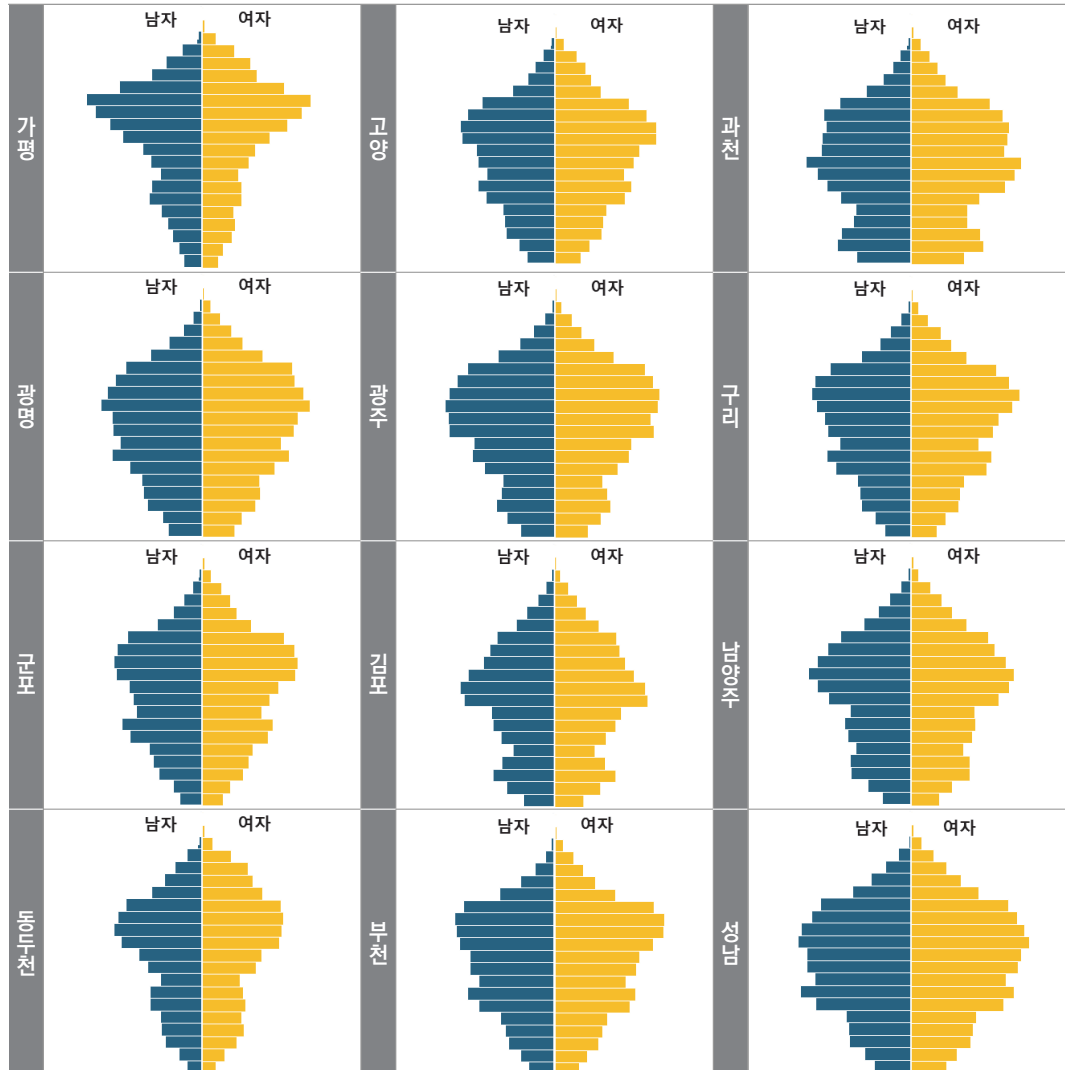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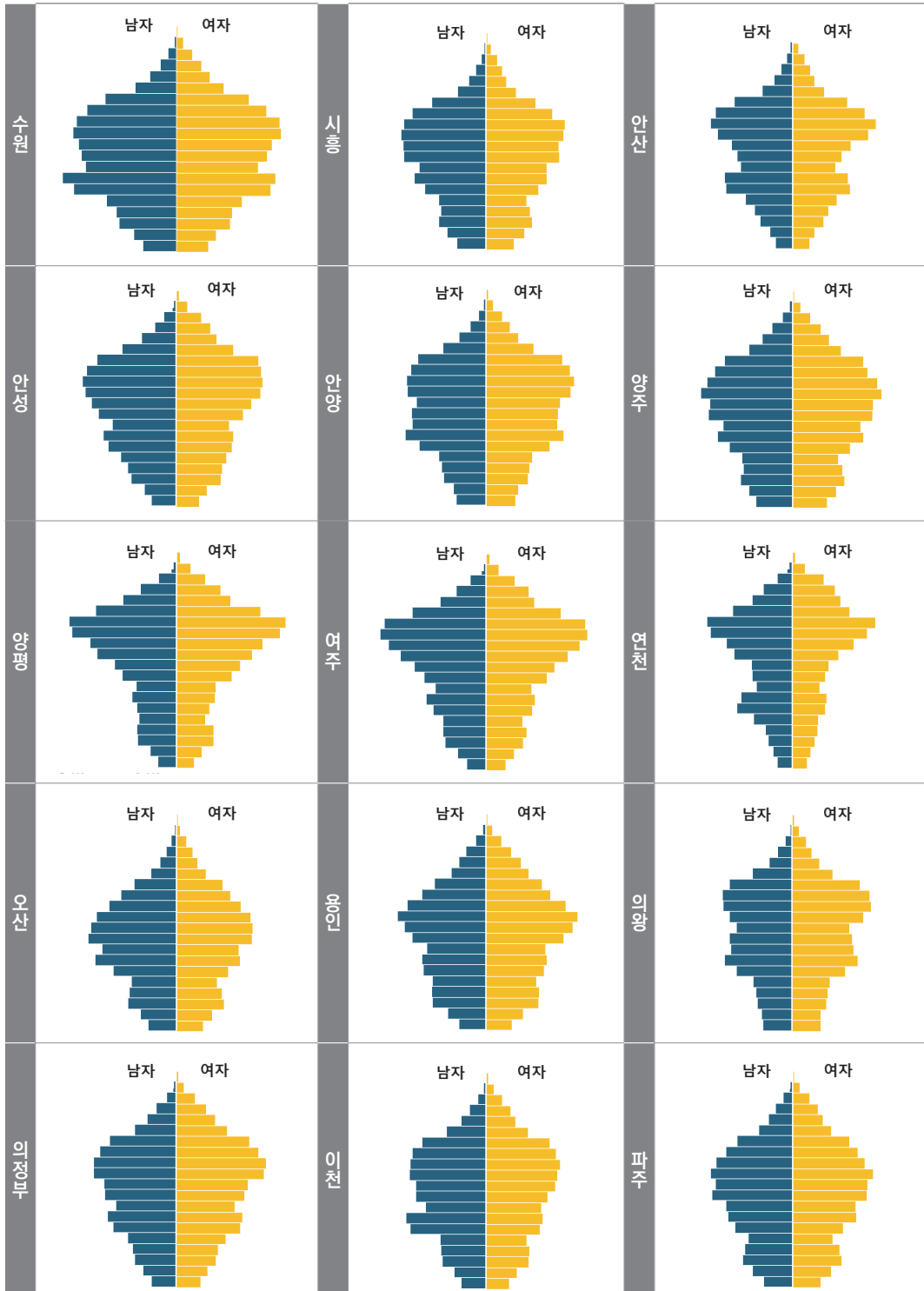
구분	2016			2025			증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경기 전체	39.3	38.4	40.2	43.6	42.5	44.6	4.3	4.1	4.4
북부	41.6	40.4	42.8	46.5	45.2	47.9	5.0	4.8	5.1
남부	39.5	38.6	40.5	43.8	42.8	44.8	4.3	4.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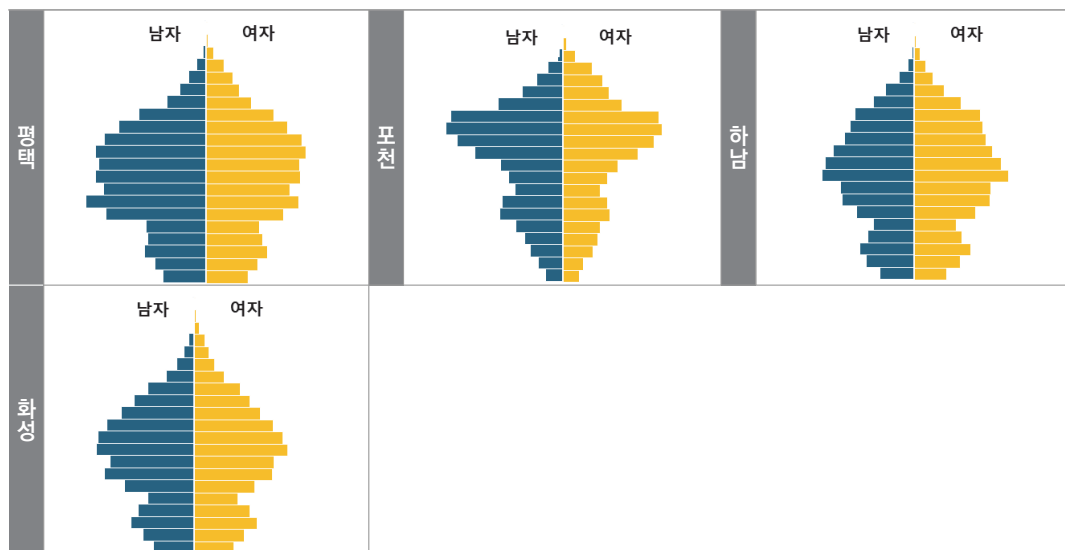
자료: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참고: 경기북부 및 남부 평균연령은 각 시군별 평균값임.

[그림 2-2] 경기도 시군 연령별 인구현황







자료: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나. 경기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혼인상태별 특성

- 2025년 기준 경기도 미혼 여성은 157만 명, 기혼 여성은 452만 명으로 나타나, 기혼 여성의 규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과 비교할 때, 혼인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경기도 미혼 여성은 2016년 130만 명에서 2025년 157만 명으로 약 26만 명 증가하여 20.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기혼 여성은 같은 기간 399만 명에서 452만 명으로 약 53만 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13.3%로 미혼 여성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성 인구 증가 속에서 미혼 여성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혼인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특징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경우 미혼 여성 증가율은 10.1%, 기혼 여성은 2.7% 증가하였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는 미혼 여성 증가율이 전국의 약 두 배 수준이며, 기혼 여성 또한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즉, 경기도는 전국 대비 여성 인구 증가 자체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 중심으로 여성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기도 여성의 혼인구조는 여전히 기혼 중심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미혼 여성의 빠른 증가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만혼 및 비혼 경향의 확산, 학력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여성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미혼 여성, 여성 1인가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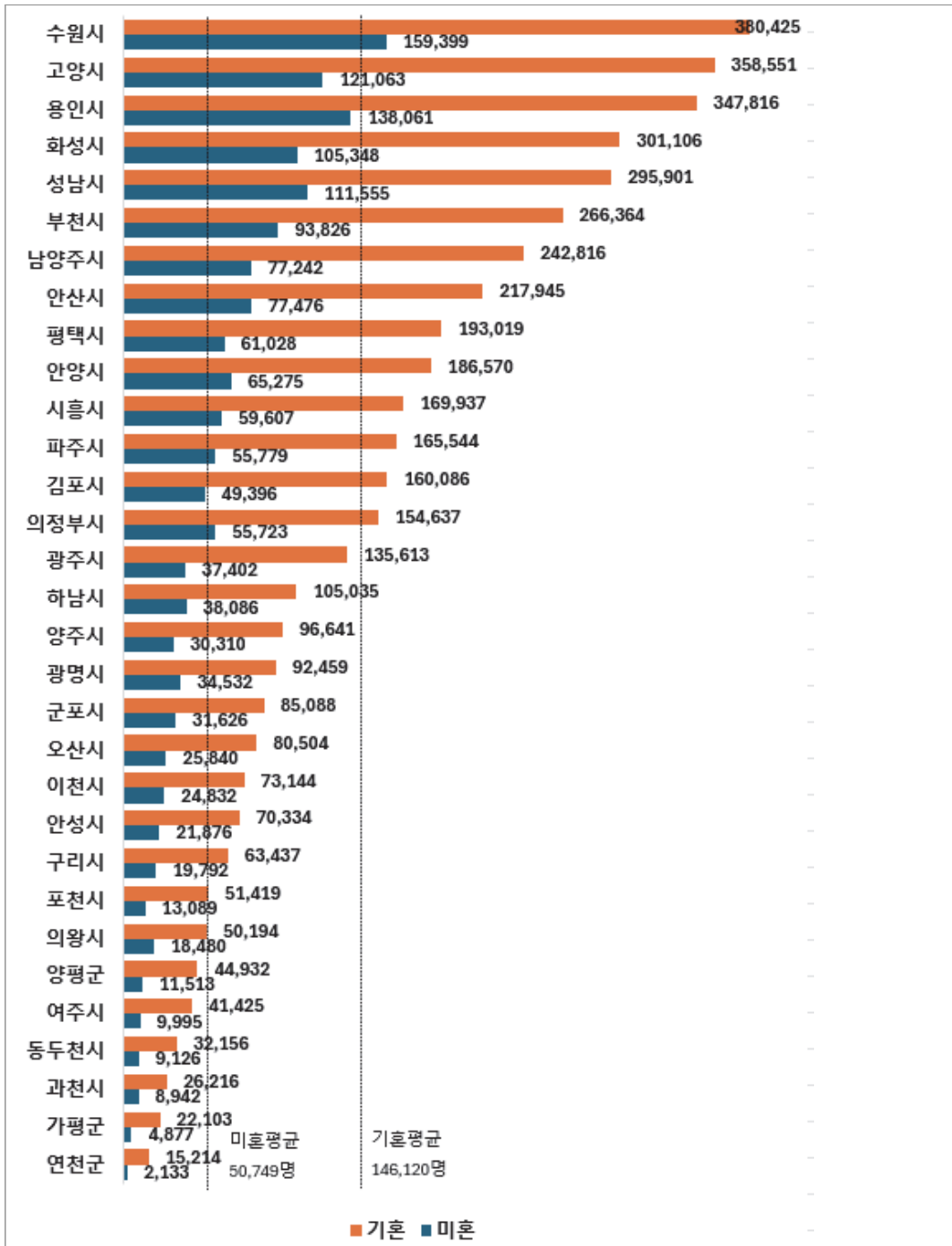
〈표 2-3〉 여성 혼인상태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5년	증감(명)	증감률(%)
전국	미혼(명)	5,365,061	5,907,228	542,167	10.1
	기혼(명)	16,807,164	17,260,571	453,407	2.7
	전체	22,172,225	23,167,799	995,574	4.5
경기도	미혼(명)	1,305,053	1,573,230	268,177	20.5
	기혼(명)	3,996,921	4,526,631	529,710	13.3
	전체	5,301,974	6,099,861	797,887	15.0
북부	미혼(명)	331,353	389,133	57,781	17.4
	기혼(명)	1,046,553	1,202,518	155,965	14.9
	전체	1,377,906	1,591,651	213,745	15.5
남부	미혼(명)	973,701	1,184,097	210,396	21.6
	기혼(명)	2,950,367	3,324,113	373,745	12.7
	전체	3,924,068	4,508,210	584,142	14.9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2-3] 경기도 시군별 여성 혼인상태별 현황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2) 교육수준별 특성

- 경기도 여성의 학력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여성 중 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는 196만 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자도 79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이하 학력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변화는 2016년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196만 명에서 207만 명으로 소폭 증가(5.6%)한 반면, 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는 137만 명에서 196만 명으로 약 58만 명 증가(42.7%)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대학원(석사·박사) 이상 학력도 각각 49.9%,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 이상 학력자를 중심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무학 및 초등학교 이하 학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저학력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여성의 학력 구조는 전국과 비교할 때도 차별적인 특징을 보인다. 전국 역시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그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의 증가율은 전국 29.9%이나 경기도는 42.7%로 훨씬 높은 수준이며, 전문대 졸업자 또한 전국 6.2% 증가에 비해 경기도는 15.7%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학력도 경기도가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반면, 저학력 인구 감소는 전국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중·고등 교육 이상으로의 학력 상향 이동이 더욱 뚜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교육 인프라 집중, 청년층 유입, 고학력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경기도 여성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대학 이상 고학력 인구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노동시장에서도 고숙련·전문직 중심의 여성 인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학력 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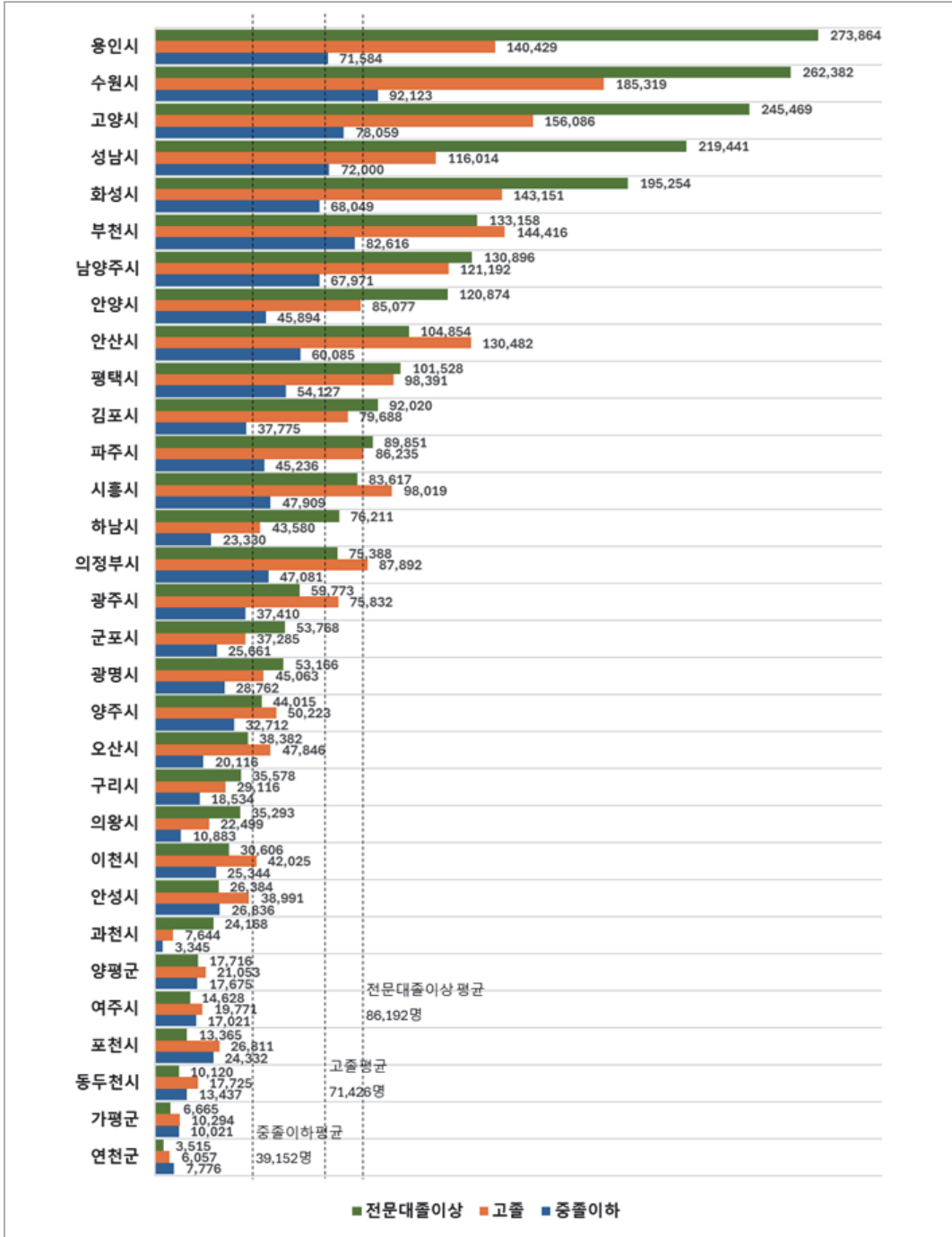
<표 2-4> 여성 학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5년	증감	증감률(%)
전국	안받았음(무학)	1,066,697	661,251	-405,446	-38.0
	초등학교	2,497,645	2,171,727	-325,918	-13.0
	중학교	2,215,467	2,020,045	-195,422	-8.8
	고등학교	7,562,081	7,350,826	-211,255	-2.8
	전문대(초급대, 2·3년제 대학포함)	2,665,615	2,830,640	165,025	6.2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포함)	5,498,975	7,140,564	1,641,589	29.9
	대학원(석사)	573,887	843,916	270,029	47.1
	대학원(박사)	91,858	148,830	56,972	62.0
	전체	22,172,225	23,167,799	995,574	4.5
경기	안받았음(무학)	166,930	104,700	-62,230	-37.3
	초등학교	462,018	427,241	-34,778	-7.5
	중학교	469,852	467,445	-2,406	-0.5
	고등학교	1,960,590	2,071,183	110,593	5.6
	전문대(초급대, 2·3년제 대학포함)	690,328	798,385	108,057	15.7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포함)	1,377,276	1,965,470	588,194	42.7
	대학원(석사)	157,353	235,861	78,508	49.9
	대학원(박사)	17,627	29,576	11,949	67.8
	전체	5,301,974	6,099,861	797,887	15.0
북부	안받았음(무학)	46,221	32,829	-13,392	-29.0
	초등학교	132,844	121,555	-11,289	-8.5
	중학교	133,577	137,560	3,983	3.0
	고등학교	520,534	557,736	37,202	7.1
	전문대(초급대, 2·3년제 대학포함)	186,358	208,425	22,067	11.8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포함)	322,347	472,438	150,091	46.6
	대학원(석사)	32,513	54,883	22,370	68.8
	대학원(박사)	3,511	6,225	2,714	77.3
	전체	1,377,906	1,591,651	213,745	15.5
남부	안받았음(무학)	120,709	71,871	-48,838	-40.5
	초등학교	329,174	305,685	-23,489	-7.1
	중학교	336,275	329,885	-6,389	-1.9
	고등학교	1,440,055	1,513,447	73,391	5.1
	전문대(초급대, 2·3년제 대학포함)	503,970	589,960	85,990	17.1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포함)	1,054,929	1,493,032	438,103	41.5
	대학원(석사)	124,841	180,978	56,138	45.0
	대학원(박사)	14,116	23,351	9,235	65.4
	전체	3,924,068	4,508,210	584,142	14.9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2-4] 여성 학력 현황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다. 경기도 영유아 가구 특성

- 경기도 영유아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구 수와 영유아 규모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39만 가구로, 2016년 56만 가구 대비 약 17만 가구가 감소하였다(30.5%). 자녀 수별로 살펴보면, 1자녀 가구는 16.0% 감소하였지만 2자녀 가구는 40.0%, 3자녀 이상 가구는 50.5% 감소하여 다자녀 가구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 전국과 경기도는 유사한 감소 흐름을 보이지만, 일부 특징적인 차이도 확인되었다. 자녀가 있는 가구 감소율은 전국 37.5%에 비해 경기도는 30.5%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특히 1자녀 가구 감소율은 전국 25.7%에 비해 경기도 16.0%로 낮아, 경기도는 다자녀 가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1자녀 가구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자녀 이상 가구 감소는 전국과 유사하게 큰 폭으로 나타나, 다자녀 가구 축소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표 2-5〉 영유아 자녀수별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항목	2016	2024	증감	증감률(%)
전국	자녀수별 가구_계(가구)	2,055,585	1,284,158	-771,427	-37.5
	-1자녀	911,876	677,127	-234,749	-25.7
	-2자녀	907,476	498,702	-408,774	-45.0
	-3자녀이상	236,233	108,329	-127,904	-54.1
경기도	자녀수별 가구_계(가구)	562,393	390,787	-171,606	-30.5
	-1자녀	249,977	209,883	-40,094	-16.0
	-2자녀	250,421	150,235	-100,186	-40.0
	-3자녀이상	61,995	30,669	-31,326	-50.5

자료: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주: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개념 :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영유아 수 역시 감소하였는데, 경기도 영유아(0~5세) 수는 2016년 72만 명에서 2024년 47만 명으로 약 24만 명 감소(34.3%)하였다. 연령별로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에서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1세(39.2%), 4세(36.2%), 2세(34.0%) 등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의 영향이 전 연령대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유아 수 감소 역시 전국 41.2% 대비 경기도 34.3%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유아 인구 감

소 속도가 다소 완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연령별로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전 연령대에서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기도는 영유아 가구 및 인구 감소라는 전국적인 흐름을 공유하면서도, 감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특히 1자녀 가구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와 영유아 인구 축소는 지속되고 있어, 향후 보육·돌봄 수요 감소뿐 아니라 장기적인 노동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표 2-6〉 영유아 인구 현황

(단위: 명, %)

	항목	2016	2024	증감	증감률(%)
전국	영유아_계(명)	2,647,419	1,557,996	-1,089,423	-41.2
	-0세	408,344	233,617	-174,727	-42.8
	-1세	432,455	231,792	-200,663	-46.4
	-2세	429,351	249,711	-179,640	-41.8
	-3세	436,232	263,446	-172,786	-39.6
	-4세	474,157	277,043	-197,114	-41.6
	-5세	466,880	302,387	-164,493	-35.2
경기도	영유아_계(명)	720,152	472,967	-247,185	-34.3
	-0세	107,967	70,872	-37,095	-34.4
	-1세	116,915	71,096	-45,819	-39.2
	-2세	116,881	77,164	-39,717	-34.0
	-3세	119,110	80,053	-39,057	-32.8
	-4세	130,587	83,284	-47,303	-36.2
	-5세	128,692	90,498	-38,194	-29.7

자료: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 경기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2024년 기준 133만 가구로, 2016년 150만 가구 대비 약 17만 가구 감소(1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녀 수에 따라 상이한 변화 양상이 확인되었다.
 - 1자녀 가구는 2016년 57만 가구에서 2024년 58만 가구로 소폭 증가(2.4%)하여, 유일하게 증가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 2자녀 가구는 20.1%, 3자녀 가구는 22.3%, 4자녀 이상 가구는 17~20% 수준 감소하여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에서 다자녀 가구가 빠르게 축소되고, 1자녀 중심의 가구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국 미성년 자녀 가구는 같은 기간 18.9% 감소하여 경기도

(11.7%)보다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1자녀 가구는 7.7%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증가(2.4%)하여, 경기도는 1자녀 가구 비중이 유지·확대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였다. 반면 2자녀 이상 가구 감소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자녀 가구 축소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확인된다.

- 경기도는 미성년 자녀 가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전국 대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특히 1자녀 가구 증가를 중심으로 가구 구조가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심화와 함께 양육 부담 증가, 가족 규모 축소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정책적으로 1자녀 가구 중심의 양육 지원 체계와 함께 다자녀 가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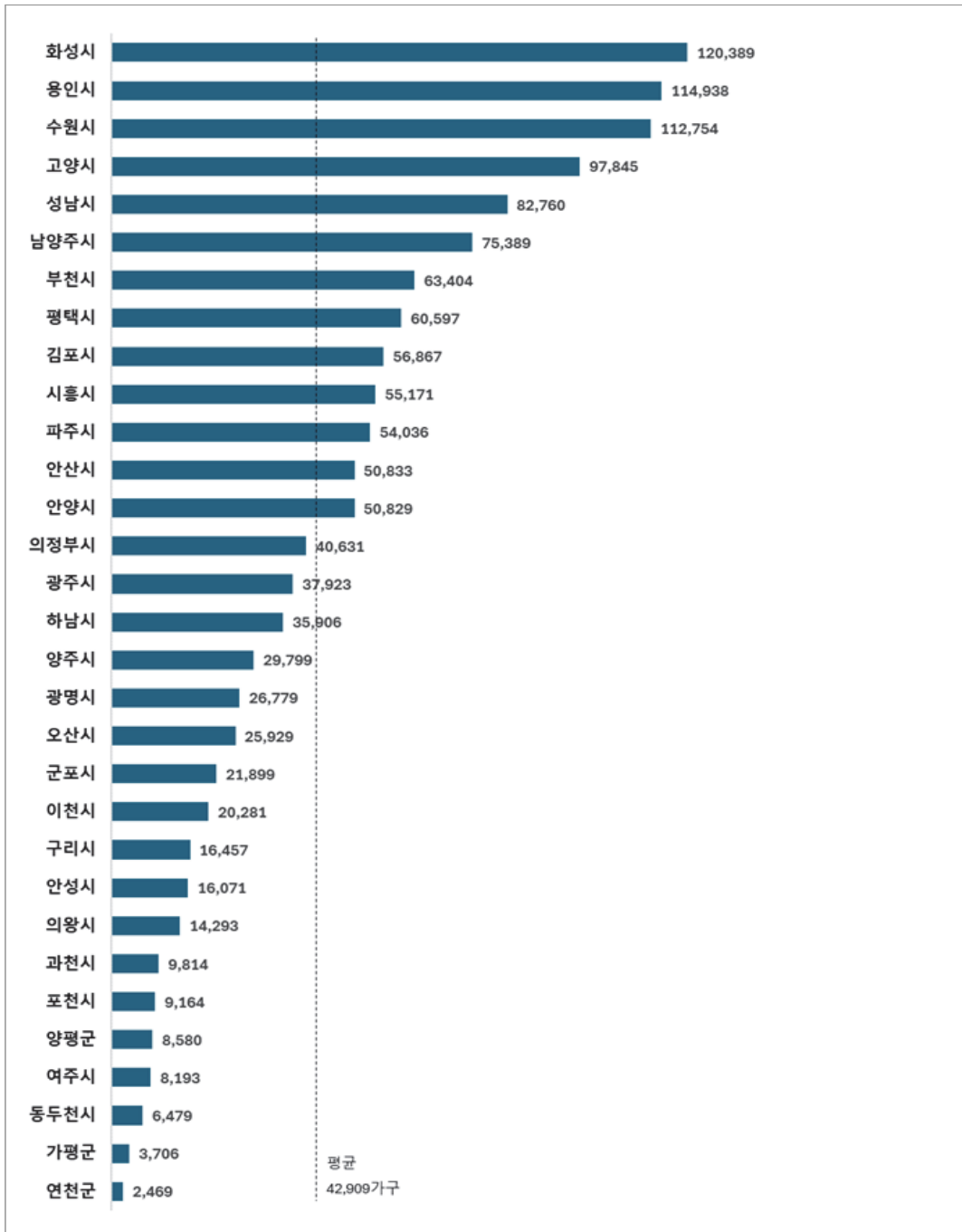
〈표 2-7〉 미성년 자녀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항목	2016	2024	증감	증감률(%)
전국	계(가구)	5,572,776	4,517,125	-1,055,651	-18.9
	1자녀	2,161,859	1,994,419	-167,440	-7.7
	2자녀	2,824,163	2,106,188	-717,975	-25.4
	3자녀	537,973	380,769	-157,204	-29.2
	4자녀	42,742	31,331	-11,411	-26.7
	5자녀 이상	6,039	4,418	-1,621	-26.8
경기도	계(가구)	1,506,363	1,330,185	-176,178	-11.7
	1자녀	575,475	589,143	13,668	2.4
	2자녀	777,884	621,625	-156,259	-20.1
	3자녀	140,944	109,557	-31,387	-22.3
	4자녀	10,651	8,741	-1,910	-17.9
	5자녀 이상	1,409	1,119	-290	-20.6
북부	계(가구)	387,423	335,975	-51,448	-13.3
	1자녀	149,651	148,681	-970	-0.6
	2자녀	198,122	156,098	-42,024	-21.2
	3자녀	36,313	28,529	-7,784	-21.4
	4자녀	2,942	2,367	-575	-19.5
	5자녀 이상	395	297	-98	-24.8
남부	계(가구)	1,118,940	994,210	-124,730	-11.1
	1자녀	425,824	440,462	14,638	3.4
	2자녀	579,762	465,527	-114,235	-19.7
	3자녀	104,631	81,028	-23,603	-22.6
	4자녀	7,709	6,374	-1,335	-17.3
	5자녀 이상	1,010	819	-191	-18.9

자료: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2-5] 시군별 미성년 자녀 가구 현황(2024년)



자료: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라. 소결

- 경기도 여성 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구조·혼인·학력·가구 특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 인구구조 측면에서 2025년 기준 경기도 여성 인구는 68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16년 73.1%에서 2025년 69.5%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남성 감소폭(75.6%→72.4%)보다 크게 나타나 여성 노동공급 기반의 상대적 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 구조 측면에서는 30~50대 여성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대 이하 청년층은 감소 또는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노동시장 진입 가능 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여성 인구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의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면에서는 혼인구조와 학력구조 모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혼인 구조의 경우 기혼 여성 중심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미혼 여성이 2016년 130만 명에서 2025년 157만 명으로 20.5%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10.1%)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혼·비혼 경향의 확산, 여성의 학력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과 연관된 것으로, 향후 미혼 여성 및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력구조 측면에서는 고학력화가 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여성은 2016년 137만 명에서 2025년 196만 명으로 42.7%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29.9%)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학원 석사(49.9%), 박사(67.8%) 학력 여성 인력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무학 및 초등학교 이하 저학력 인구는 감소하여 학력 구조의 상향 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학력화 추세는 향후 고숙련·전문직 중심의 여성 인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학력 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가구 특성 측면에서는 저출산의 영향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 영유아(0~5세) 가구 수는 2016년 56만 가구에서 2024년 39만 가구로 30.5% 감소하였으며, 영유아 인구 역시 72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34.3% 줄었다. 전국 감소율(37.5%, 41.2%)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으로, 이는 경기도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완충 효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저출산의 구조적 흐름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녀 수별로는 2자녀 가구(40.0%)와 3자녀 이상 가구(50.5%)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미성년 자녀 가구에서는 1자녀 가구만이 유일하게 소폭 증가(2.4%)하여 전국 1자녀 가구 감소(7.7%)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에서 1자녀 중심의 가구 구조로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는 장기적인 노동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종합하면, 경기도 여성 인구는 고령화, 비혼화, 고학력화, 저출산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공급 기반의 약화와 고학력 여성 인력의 확대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대응과 빠르게 증가하는 고학력·미혼 여성 인력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 여성의 노동시장 지속 참여, 고학력 여성을 위한 전문직·관리직 경력 강화, 미혼 및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독립적 경제활동 지원 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분석

Ⅲ. 경기도 노동시장 구조 특성

3. 경기도 노동시장 구조 특성¹⁾

가.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1) 경기도 산업 구조

- 2024년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 기준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38.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28.9%), 전기·운수·통신·금융(15.1%)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비중 역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37.7%)가 가장 높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22.8%), 제조업(21.7%)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역시 일정 규모의 고용 기반을 유지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 2016년과 비교할 때, 경기도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 구조가 강화되고, 일부 산업에서 비중 변화가 나타났다.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사업체 비중이 29.5%에서 28.9%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종사자 비중은 35.0%에서 37.7%로 증가하여 고용 측면에서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 둘째,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사업체 비중이 40.5%에서 38.3%로 종사자 비중은 23.7%에서 22.8%로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 셋째, 제조업은 사업체 비중이 15.0%에서 10.1%로, 종사자 비중이 26.6%에서 21.7%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경기도 산업구조의 주요 기반 산업으로 나타났다.
 - 넷째, 건설업은 사업체 비중이 3.3%에서 7.5%, 종사자 비중이 5.2%에서 6.3%로 증가하였으며,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역시 사업체 비중이 11.5%에서 15.1%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기준 전국 대비 경기도의 산업구조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사업체 비중은 전국(38.8%)과 유사한 수준이며, 종사자

¹⁾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전국사업체조사」자료 중 사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집계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두 조사는 조사 목적, 대상 및 조사 방식이 상이하므로 수치를 직접 비교하거나 해석할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중 역시 전국(22.6%)과 차이가 크지 않다.

- 둘째,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전국 16.3% 대비 경기도 21.7%로 더 높게 나타나,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강한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셋째,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종사자 비중이 전국 40.9%, 경기도 37.7%로 전국보다 낮으나,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넷째, 건설업은 사업체 비중 기준 전국 7.9%, 경기도 7.5%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2016년 대비 증가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2024년 경기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 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비중 확대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산업 구성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경기도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비스업 고용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 경기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천명, %)

		2016				2024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천명)	사업체 비중	종사자수 비중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천명)	사업체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 국	전체	3,950,192	21,259	100.0	100.0	6,363,262	25,641	100.0	100.0
	농림어업	3,650	40	0.1	0.2	11,967	63	0.2	0.2
	광제조업	432,960	4,113	11.0	19.3	511,380	4,173	8.0	16.3
	건설업	137,220	1,393	3.5	6.6	504,267	1,861	7.9	7.3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746,515	5,305	44.2	25.0	2,470,859	5,786	38.8	22.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1,156,947	7,941	29.3	37.4	1,838,484	10,486	28.9	40.9
	전기·운수·통신·금융	472,900	2,468	12.0	11.6	1,026,305	3,272	16.1	12.8
	전체	856,163	4,803	100.0	100.0	1,604,724	6,269	100.0	100.0
경 기	전체	856,163	4,803	100.0	100.0	1,604,724	6,269	100.0	100.0
	농림어업	412	4	0.0	0.1	1,524	8	0.1	0.1
	광제조업	128,664	1,277	15.0	26.6	162,458	1,362	10.1	21.7
	건설업	28,452	250	3.3	5.2	119,667	397	7.5	6.3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47,136	1,140	40.5	23.7	615,174	1,431	38.3	22.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52,966	1,681	29.5	35.0	463,962	2,367	28.9	37.7
	전기·운수·통신·금융	98,533	449	11.5	9.4	241,939	705	15.1	11.2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국가데이터처

2) 산업별 사업체 현황

- 경기도 산업별 사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사업체 수는 2016년 468,641개에서 2023년 556,705개로 증가하여 1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 내 사업체 수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을 나타낸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² 406개에서 1,151개로 183.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 사업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절대 규모가 큰 산업 중에서는 정보통신업이 5,105개에서 12,145개로 137.9%의 증가율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7,284개에서 13,250개로 81.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4,927개에서 26,980개로 80.7% 증가하였다. 또한, 건설업은 21,127개에서 30,976개로 46.6% 증가하여 비교적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운수 및 창고업(36.6%),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37.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0.5%) 등에서도 30% 이상의 증가율이 확인되었다.
- 반면, 광업은 91개에서 90개로 1.1% 감소하였으며,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34,269개에서 33,482개로 2.3% 감소하여 일부 산업에서는 사업체 수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 특히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 기반 산업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점은 최근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여전히 가장 큰 사업체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도 산업구조가 생활·서비스업 중심 기반 위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종합하면, 경기도는 2016년 대비 대부분 산업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 생활서비스 수요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변화와 함께 경기도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² 농업·임업 및 어업은 사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산업으로, 소규모 사업체 증가에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2〉 경기도 산업별 사업체 현황: 전체

(단위: 개, %)

산업분류별	2016	2023	증감	
	사업체수(개)	사업체수(개)	증감(개)	증감(%)
전체	468,641	556,705	88,064	18.8
농업, 임업 및 어업	406	1,151	745	183.5
광업	91	90	-1	-1.1
제조업	97,367	109,074	11,707	12.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23	291	68	3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766	2,424	658	37.3
건설업	21,127	30,976	9,849	46.6
도매 및 소매업	108,299	123,318	15,019	13.9
운수 및 창고업	8,667	11,836	3,169	36.6
숙박 및 음식점업	79,329	85,356	6,027	7.6
정보통신업	5,105	12,145	7,040	137.9
금융 및 보험업	6,370	7,002	632	9.9
부동산업	19,422	25,462	6,040	3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927	26,980	12,053	80.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284	13,250	5,966	81.9
교육 서비스업	22,142	25,533	3,391	1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906	36,524	5,618	1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941	11,811	870	8.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269	33,482	-787	-2.3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 경기도 남북부의 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남부는 421,834개, 북부는 134,871개로 남부가 북부에 비해 약 3.1배 큰 사업체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내 산업 및 사업체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산업별 사업체 규모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 남부는 제조업(85,196개), 도·소매업(91,661개), 숙박 및 음식점업(63,985개)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북부보다 큰 규모로 확인되었다. 서비스업에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6,831개),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4,301개), 건설업(23,330개),

³ 농업, 임업 및 어업은 남북부 모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북부지역은 91개에서 320개로 증가하여 251.6%의 증가율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산업은 사업체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소수 사업체 증가에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비중이 높고 농림어업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림어업 관련 사업체 증가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1,673개), 부동산업(19,465개), 교육 서비스업(19,384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0,276개) 등에서 북부 대비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 북부는 전체 규모는 작으나 산업 구성 측면에서는 남부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도·소매업(31,657개), 제조업(23,878개), 숙박 및 음식점업(21,371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93개),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181개), 건설업(7,646개), 교육서비스업(6,149개) 등도 비교적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도 대비 2023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남부와 북부 모두 전체 사업체 수가 증가하였으며, 남부는 69,541개(2016년: 352,293개, 2023년: 421,834개)로 19.7% 증가하였으며, 북부는 18,523개(2016년: 116,348개, 2023년: 134,871개)로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부의 사업체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북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증가율이 높은 산업⁴을 살펴보면, 남부에서는 정보통신업(148.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2.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8.5%), 건설업(46.0%) 등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부 역시 정보통신업(103.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94.9%), 건설업(48.4%) 등 유사한 산업군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북부 모두 정보통신업과 전문서비스업 등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의 증가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제조업은 남부와 북부 모두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정보통신업이나 전문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산업구조가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기도 산업별 사업체는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모 측면에서도 남부가 북부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만 산업 구성 자체는 남북부 모두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중심의 유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지식·기술 기반 산업의 증가가 남북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⁴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체 수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작아 주요 증가 산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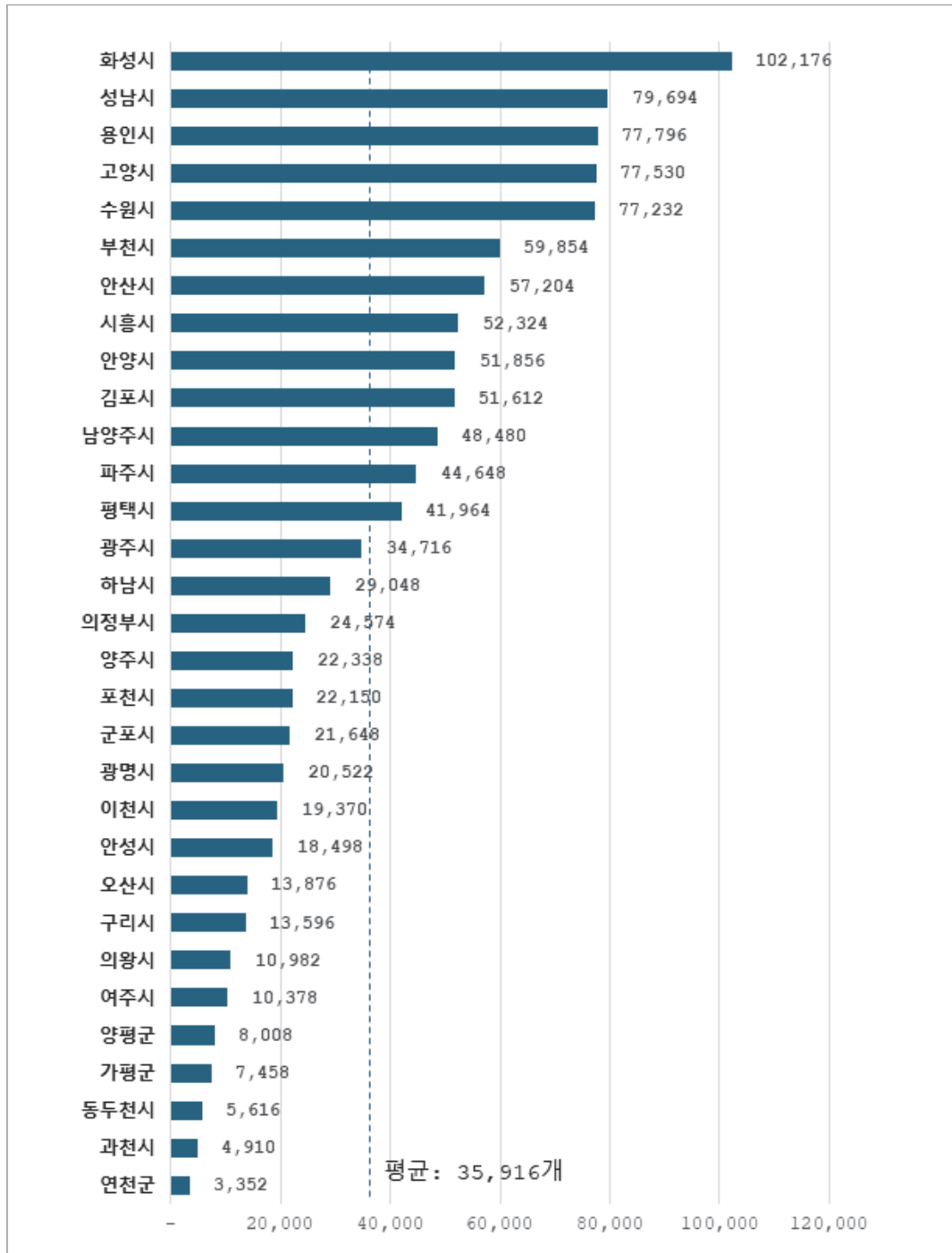
〈표 3-3〉 경기도 산업별 사업체 현황: 남·북부

(단위: 개, %)

구분		2016	2023	증감	
		사업체수 (개)	사업체수 (개)	증감(개)	증감(%)
북부	전체	116,348	134,871	18,523	15.9
	농업, 임업 및 어업	91	320	229	251.6
	광업	35	33	-2	-5.7
	제조업	21,981	23,878	1,897	8.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9	93	24	34.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97	641	144	29.0
	건설업	5,153	7,646	2,493	48.4
	도매 및 소매업	28,047	31,657	3,610	12.9
	운수 및 창고업	1,981	2,711	730	36.9
	숙박 및 음식점업	20,487	21,371	884	4.3
	정보통신업	1,163	2,363	1,200	103.2
	금융 및 보험업	1,551	1,677	126	8.1
	부동산업	4,678	5,997	1,319	2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38	5,307	2,269	74.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26	2,974	1,448	94.9
	교육 서비스업	5,552	6,149	597	1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263	9,693	1,430	1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22	3,180	158	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214	9,181	-33	-0.4
남부	전체	352,293	421,834	69,541	19.7
	농업, 임업 및 어업	315	831	516	163.8
	광업	56	57	1	1.8
	제조업	75,386	85,196	9,810	1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54	198	44	28.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269	1,783	514	40.5
	건설업	15,974	23,330	7,356	46.0
	도매 및 소매업	80,252	91,661	11,409	14.2
	운수 및 창고업	6,686	9,125	2,439	36.5
	숙박 및 음식점업	58,842	63,985	5,143	8.7
	정보통신업	3,942	9,782	5,840	148.1
	금융 및 보험업	4,819	5,325	506	10.5
	부동산업	14,744	19,465	4,721	3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889	21,673	9,784	82.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758	10,276	4,518	78.5
	교육 서비스업	16,590	19,384	2,794	1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643	26,831	4,188	1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919	8,631	712	9.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055	24,301	-754	-3.0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그림 3-1】 2023년 경기도 시군별 사업체 현황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3) 산업별 종사자 현황

- 2023년 경기도 산업별 전체 종사자 수는 475.6만 명으로 2016년 대비 69.9만 명(17.2%) 증가하였다. 산업별 규모를 보면 제조업이 가장 큰 고용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확인된다. 서비스업 중심 산업에서 종사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최근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산업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업(65,225명, 7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1,251명, 62.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5,271명, 45.6%) 등 지식·생활서비스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종사자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38.6%), 건설업(25.8%), 농업·임업 및 어업(69.1%)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 확인되었다.
 - 제조업은 57,098명 증가하여 절대적인 증가 규모는 큰 편이었으나, 증가율은 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이 여전히 경기도의 주요 고용 기반 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역시 증가 규모는 크지 않으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일부 산업에서는 종사자 수 감소가 확인되었는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27,899명(18.2%)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 또한 763명(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산업별 종사자 구조는 제조업이 여전히 가장 큰 고용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중심 산업에서 종사자 증가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 산업구조가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생활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산업에서는 종사자 감소가 나타나 산업별 고용 변화가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 산업별 종사자 현황: 전체

(단위: 명, %)

산업분류별	2016	2023	증감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증감(명)	증감(%)
전체	4,056,901	4,755,641	698,740	17.2
농업, 임업 및 어업	4,031	6,816	2,785	69.1
광업	1,367	1,535	168	12.3
제조업	1,229,439	1,286,537	57,098	4.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575	8,967	392	4.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963	29,046	8,083	38.6
건설업	239,221	300,998	61,777	25.8
도매 및 소매업	563,805	612,460	48,655	8.6
운수 및 창고업	159,802	189,934	30,132	18.9
숙박 및 음식점업	353,175	399,205	46,030	13.0
정보통신업	91,472	156,697	65,225	71.3
금융 및 보험업	103,792	103,029	-763	-0.7
부동산업	103,830	113,228	9,398	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1,080	336,351	105,271	45.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3,110	244,310	61,200	33.4
교육 서비스업	195,298	208,896	13,598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37,379	548,630	211,251	6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7,016	83,355	6,339	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3,546	125,647	-27,899	-18.2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 2023년 기준 경기도 전체 종사자 수는 남부 3,777,323명, 북부 978,318명으로, 남부가 북부에 비해 약 3.9배 큰 종사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증가폭을 살펴보면, 남부는 17.8%(571,058명), 북부는 15.0%(127,682명) 증가하여 남부의 종사자 증가 규모가 북부보다 크게 나타나 고용 증가 역시 남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3년 지역에 따른 산업별 종사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남부는 제조업(1,061,458명), 도·소매업(460,846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96,941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07,382명), 숙박 및 음식점업(300,437명) 순으로 종사자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정보통신업(142,32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05,351명) 등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도 큰 규모를 보이며, 제조업과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구조가 나타났다.

- 북부는 제조업(225,079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1,689명), 도·소매업(151,614명), 숙박 및 음식점업(98,768명), 건설업(62,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규모는 남부보다 작으나 제조업·도소매업·보건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8,969명), 정보통신업(14,377명) 등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의 규모는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도 대비 2023년도 지역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남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1,901명, 62.0%), 정보통신업(61,786명, 76.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6,355명, 45.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7,329명, 30.0%), 건설업(50,565명, 26.8%) 등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23,287명(20.0%)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북부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9,350명, 64.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871명, 55.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916명, 44.5%), 정보통신업(3,439명, 31.4%), 건설업(11,212명, 22.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부와 유사하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및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종사자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제조업은 448명(0.2%) 감소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2,772명, 11.0%),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612명, 12.5%)에서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간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남부는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고용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업·전문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보통신업은 남부 142,320명, 북부 14,377명으로 약 9.9배의 차이를 보여, 서비스업 가운데 지역 간 규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북부는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제조업 종사자 수가 소폭 감소한 점도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 2023년 기준 경기도 산업별 종사자는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남북부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의 증가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남북부는 산업구성 자체보다는 종사자 규모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집중도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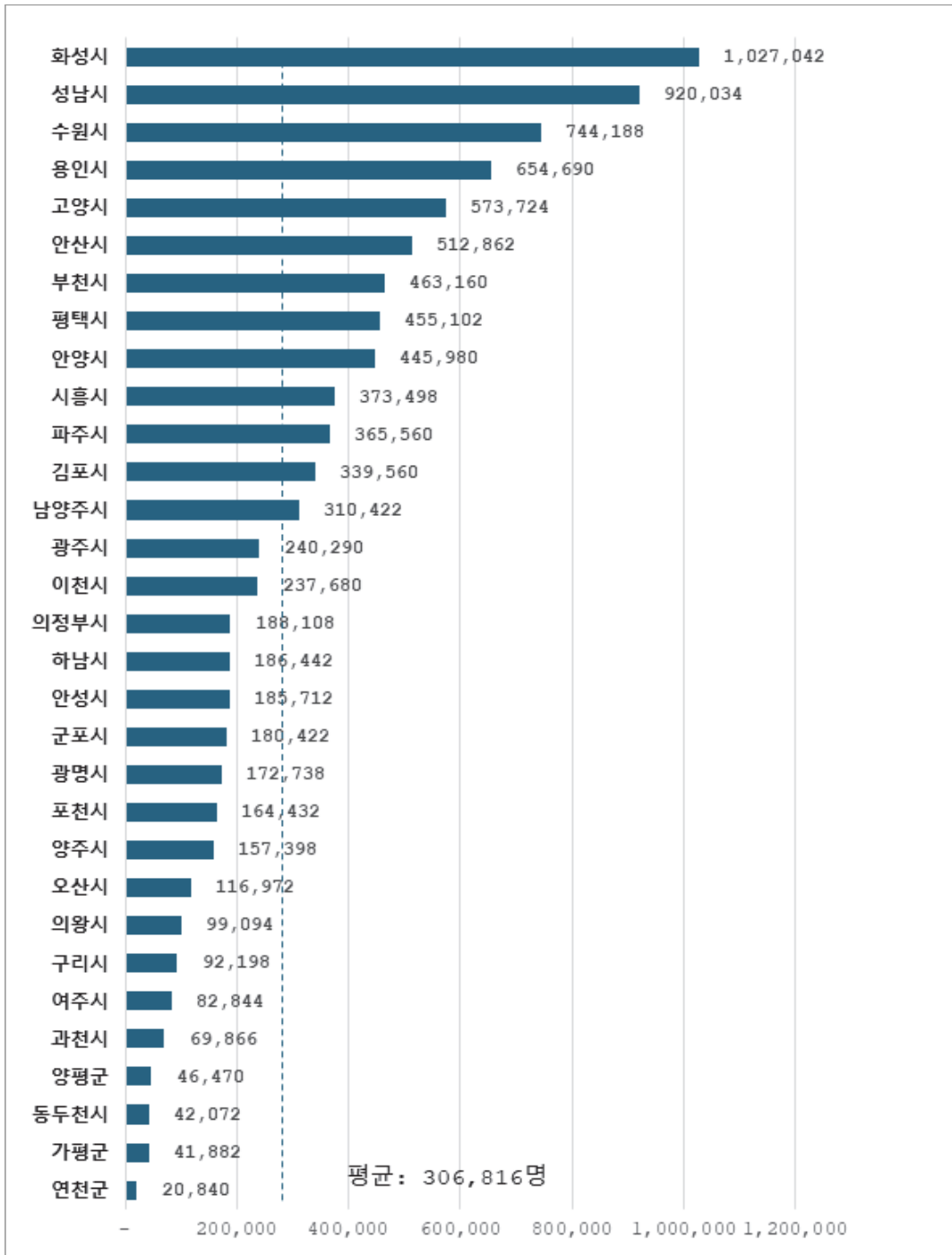
<표 3-5> 산업별 종사자 현황: 남·북부

(단위: 명, %)

구분		2016	2023	증감	
		종사자수 (명)	종사자수 (명)	증감(명)	증감(%)
-부	전체	850,636	978,318	127,682	15.0
	농업, 임업 및 어업	901	1,575	674	74.8
	광업	722	769	47	6.5
	제조업	225,527	225,079	-448	-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498	2,849	351	14.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861	7,856	1,995	34.0
	건설업	50,891	62,103	11,212	22.0
	도매 및 소매업	143,084	151,614	8,530	6.0
	운수 및 창고업	35,365	44,275	8,910	25.2
	숙박 및 음식점업	88,632	98,768	10,136	11.4
	정보통신업	10,938	14,377	3,439	31.4
	금융 및 보험업	25,142	22,370	-2,772	-11.0
	부동산업	24,319	25,438	1,119	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053	28,969	8,916	44.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088	38,959	13,871	55.3
	교육 서비스업	42,770	46,574	3,804	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2,339	151,689	59,350	6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655	22,815	3,160	1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851	32,239	-4,612	-12.5
-부	전체	3,206,265	3,777,323	571,058	17.8
	농업, 임업 및 어업	3,130	5,241	2,111	67.4
	광업	645	766	121	18.8
	제조업	1,003,912	1,061,458	57,546	5.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077	6,118	41	0.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5,102	21,190	6,088	40.3
	건설업	188,330	238,895	50,565	26.8
	도매 및 소매업	420,721	460,846	40,125	9.5
	운수 및 창고업	124,437	145,659	21,222	17.1
	숙박 및 음식점업	264,543	300,437	35,894	13.6
	정보통신업	80,534	142,320	61,786	76.7
	금융 및 보험업	78,650	80,659	2,009	2.6
	부동산업	79,511	87,790	8,279	1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1,027	307,382	96,355	45.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8,022	205,351	47,329	30.0
	교육 서비스업	152,528	162,322	9,794	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5,040	396,941	151,901	6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361	60,540	3,179	5.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6,695	93,408	-23,287	-20.0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그림 3-2] 2023년 경기도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4) 산업별·성별 종사자 현황

- 2023년 경기도 전체 종사자 수는 남성 279.6만 명, 여성 196.0만 명으로, 2016년 대비 남성 15.0%, 여성 20.6% 증가하였다.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 2023년 기준 가장 큰 고용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남성 955,938명, 여성 330,599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남성 358,249명, 여성 254,211명으로 두 번째로 큰 고용 규모를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여성 453,200명으로 전 산업 중 여성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남성(95,430명) 대비 여성 비중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여성 중심 산업으로 확인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여성 248,247명, 남성 150,958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 반면 건설업은 남성 251,023명, 여성 49,975명, 정보통신업은 남성 106,945명, 여성 49,752명으로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를 보였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남성 139,255명, 여성 105,055명으로 성별 분포가 비교적 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 종사자 증감은 다음과 같다. 증가 규모 및 증가율이 모두 높은 산업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남녀 모두 종사자 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남성 53.5%(33,260명), 여성 64.7%(177,991명) 증가하여 증가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증가율 역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보통신업은 남성 63.1%, 여성 92.2% 증가하여 특히 여성 증가율이 높게 확인되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남성 42.5%, 여성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은 남성 22.1%, 여성 48.7% 증가하여 여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운수 및 창고업 역시 여성 증가율이 4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남성 40.3%, 여성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남성 14.2%, 여성 23.2%로 남녀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 산업 중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은 남성 2.4% 감소, 여성 0.2% 증가로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또는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다.
- 최근 경기도 산업별 종사자 구조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여전히 큰 고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중심 산업에서 남녀 모두 종사자 증가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다수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산업별로 여성 집중 산업과 남성 중심 산업 간 차이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산업별 성별 종사자 현황: 전체

(단위: 명, %)

산업분류별	2016		2023		증감	
	남자(명)	여자(명)	남자(명)	여자(명)	남자(%)	여자(%)
전체	2,431,393	1,625,508	2,795,834	1,959,807	15.0	20.6
농업, 임업 및 어업	2,808	1,223	4,671	2,145	66.3	75.4
광업	1,255	112	1,389	146	10.7	30.4
제조업	912,077	317,362	955,938	330,599	4.8	4.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248	1,327	7,286	1,681	0.5	26.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7,655	3,308	24,465	4,581	38.6	38.5
건설업	205,610	33,611	251,023	49,975	22.1	48.7
도매 및 소매업	319,217	244,588	358,249	254,211	12.2	3.9
운수 및 창고업	134,537	25,265	153,647	36,287	14.2	43.6
숙박 및 음식점업	128,560	224,615	150,958	248,247	17.4	10.5
정보통신업	65,585	25,887	106,945	49,752	63.1	92.2
금융 및 보험업	37,158	66,634	36,259	66,770	-2.4	0.2
부동산업	67,269	36,561	75,238	37,990	11.8	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7,708	63,372	238,968	97,383	42.5	5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9,267	83,843	139,255	105,055	40.3	25.3
교육 서비스업	78,300	116,998	80,170	128,726	2.4	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2,170	275,209	95,430	453,200	53.5	6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818	38,198	42,056	41,299	8.3	8.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6,151	67,395	73,887	51,760	-14.2	-23.2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 남북부의 성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부는 남성 59.9%, 여성 40.1%, 북부는 남성 54.6%, 여성 45.4%로 나타나 북부가 남부에 비해 여성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증가율은 남부가 남성 15.9%, 여성 20.8%이며, 북부는 남성 11.3%, 여성 19.7%로 남북부 모두 여성 종사자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공통된 특징이 확인되었다.
- 성별 종사자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남부는 제조업에서 남성(794,259명)이 여성(267,199명)의 약 3배 수준으로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통신업(남성 98,080명, 여성 44,240명), 건설업(남성 199,606명, 여성 39,289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남성 220,831명, 여성 86,551명) 역시 남성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여성(328,290명)이 남성(68,651명)의 약 4.8배에 달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여성 187,646명, 남성 112,791명)과 교육 서비스업(여성 99,513명, 남성 62,809명) 등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북부는 남부와 유사한 성별 분포와 패턴을 보이지만, 성별 격차의 정도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제조업은 남성(161,679명)이 여성(63,400명)의 약 2.5배로, 남부(약 3배)에 비해 성별 격차가 다소 작게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여성(124,910명)이 남성(26,779명)의 약 4.7배로 남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여성 60,601명, 남성 38,167명)은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여성 64,814명, 남성 86,800명)은 남녀 모두 종사자 규모가 큰 산업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 대비 2023년 성별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남부에는 여성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은 산업으로 정보통신업(여성 104.9%, 남성 66.4%), 운수 및 창고업(여성 36.2%, 남성 1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여성 64.0%, 남성 53.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여성 53.4%, 남성 42.8%) 등에서 여성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 역시 남성(23.3%)과 여성(48.9%)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북부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여성 66.4%, 남성 54.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여성 55.7%, 남성 38.5%), 운수 및 창고업(여성 73.9%, 남성 17.2%) 등에서 여성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운수 및 창고업에서 여성 증가율(73.9%)이 남성(17.2%) 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남성(15.9%), 여성(8.3%) 모두 감소하였으며,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역시 남성(6.1%), 여성(20.9%)으로 여성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남부와 북부 모두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에서 남성 비중이 높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여성 비중이 높은 유사한 성별 분포를 보였다. 다만, 북부는 남부와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북부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여성 집중 산업인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남북부 모두 다수 산업에서 여성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경기도 전반에 걸쳐 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23년 기준 경기도 남북부 산업별 성별 종사자 현황을 종합하면, 종사자 규모는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성별 분포 패턴은 남북부 간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남성 중심,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여성 중심의 고용 구조가 남북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두 지역 모두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보건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여성 고용 확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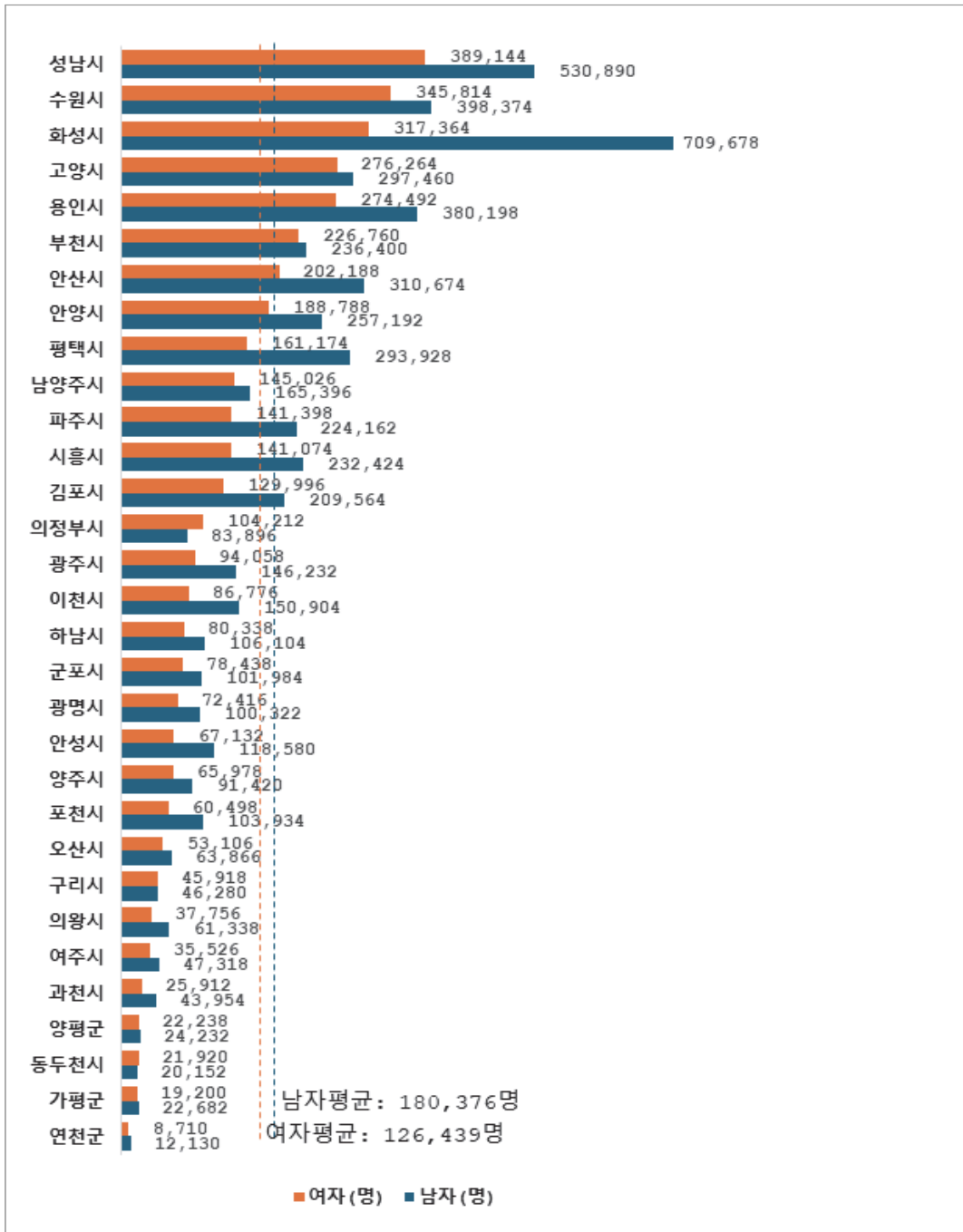
<표 3-7> 산업별 성별 종사자 현황: 남·북부

(단위: 명, %)

구분		2016		2023		증감	
		남자(명)	여자(명)	남자(명)	여자(명)	남자(%)	여자(%)
북부	전체	479,365	371,271	533,756	444,562	11.3	19.7
	농업, 임업 및 어업	651	250	1,071	504	64.5	101.6
	광업	674	48	712	57	5.6	18.8
	제조업	161,667	63,860	161,679	63,400	0.0	-0.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132	366	2,375	474	11.4	29.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006	855	6,771	1,085	35.3	26.9
	건설업	43,662	7,229	51,417	10,686	17.8	47.8
	도매 및 소매업	80,076	63,008	86,800	64,814	8.4	2.9
	운수 및 창고업	30,380	4,985	35,606	8,669	17.2	73.9
	숙박 및 음식점업	32,970	55,662	38,167	60,601	15.8	8.9
	정보통신업	6,641	4,297	8,865	5,512	33.5	28.3
	금융 및 보험업	8,923	16,219	7,504	14,866	-15.9	-8.3
	부동산업	15,999	8,320	17,086	8,352	6.8	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098	6,955	18,137	10,832	38.5	55.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354	11,734	22,417	16,542	67.9	41.0
	교육 서비스업	15,932	26,838	17,361	29,213	9.0	8.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295	75,044	26,779	124,910	54.8	6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59	9,596	11,435	11,380	13.7	18.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846	16,005	19,574	12,665	-6.1	-20.9
남부	전체	1,952,028	1,254,237	2,262,078	1,515,245	15.9	20.8
	농업, 임업 및 어업	2,157	973	3,600	1,641	66.9	68.7
	광업	581	64	677	89	16.5	39.1
	제조업	750,410	253,502	794,259	267,199	5.8	5.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116	961	4,911	1,207	-4.0	25.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2,649	2,453	17,694	3,496	39.9	42.5
	건설업	161,948	26,382	199,606	39,289	23.3	48.9
	도매 및 소매업	239,141	181,580	271,449	189,397	13.5	4.3
	운수 및 창고업	104,157	20,280	118,041	27,618	13.3	36.2
	숙박 및 음식점업	95,590	168,953	112,791	187,646	18.0	11.1
	정보통신업	58,944	21,590	98,080	44,240	66.4	104.9
	금융 및 보험업	28,235	50,415	28,755	51,904	1.8	3.0
	부동산업	51,270	28,241	58,152	29,638	13.4	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4,610	56,417	220,831	86,551	42.8	5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5,913	72,109	116,838	88,513	36.0	22.7
	교육 서비스업	62,368	90,160	62,809	99,513	0.7	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875	200,165	68,651	328,290	53.0	6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8,759	28,602	30,621	29,919	6.5	4.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5,305	51,390	54,313	39,095	-16.8	-23.9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그림 3-3] 2023년 경기도 성별 종사자 현황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나.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 현황

1) 경기도 종사자 현황 전체

- 2024년 경기도 종사자 구조를 살펴보면, 여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49.5%)의 비중이 가장 높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27.3%), 제조업(1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29.1%), 제조업(28.1%),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6%)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기도 여성 종사자가 서비스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보이는 반면, 남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적 분산된 종사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 2016년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도 종사자 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첫째,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남성 27.5%→29.1%, 여성 45.6%→49.5%로 증가하여 남녀 모두에서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 둘째, 제조업은 남성 33.8%→28.1%, 여성 16.5%→13.1%로 남녀 모두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셋째,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남성 19.5%→19.6%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여성은 29.6%→27.3%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건설업은 남성 7.7%→9.1%, 여성 1.8%→2.6%로 소폭 증가하였다.
- 2024년 기준 전국과 비교한 경기도 종사자 구조의 특징은 제조업 비중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제조업 비중은 전국 남성 21.7%, 여성 9.4%에 비해 경기도는 남성 28.1%, 여성 13.1%로 남녀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둘째,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전국 남성 32.1%, 여성 52.1%에 비해 경기도는 남성 29.1%, 여성 49.5%로 다소 낮았으나, 남녀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 셋째,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전국 남성 19.2%, 여성 26.8%에 비해 경기도는 남성 19.6%, 여성 27.3%로 전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넷째, 건설업은 전국 남성 10.8%, 여성 2.8%에 비해 경기도는 남성 9.1%, 여성 2.6%로 남녀 모두 전국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 2024년 경기도 종사자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여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종사자가 집중된 반면, 남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구조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전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였으나, 경기도는 남녀 모두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점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표 3-8〉 경기도 종사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24				비율변화	
	남자 (천명)	여자 (천명)	남자 (%)	여자 (%)	남자 (천명)	여자 (천명)	남자 (%)	여자 (%)	남 (%p)	여 (%p)
전국										
전체	12,194	9,065	100.0	100.0	14,371	11,270	100.0	100.0	-	-
농림어업	29	11	0.2	0.1	46	17	0.3	0.2	0.1	0.0
광제조업	3,044	1,069	25.0	11.8	3,119	1,054	21.7	9.4	-3.3	-2.4
건설업	1,196	196	9.8	2.2	1,550	311	10.8	2.8	1.0	0.6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472	2,832	20.3	31.2	2,763	3,022	19.2	26.8	-1.0	-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3,716	4,225	30.5	46.6	4,619	5,867	32.1	52.1	1.7	5.4
전기·운수·통신·금융	1,737	731	14.2	8.1	2,274	998	15.8	8.9	1.6	0.8
경기										
전체	2,807	1,996	100.0	100.0	3,607	2,663	100.0	100.0		
농림어업	3	1	0.1	0.1	5	3	0.1	0.1	0.0	0.0
광제조업	948	330	33.8	16.5	1,014	349	28.1	13.1	-5.7	-3.4
건설업	215	36	7.7	1.8	329	68	9.1	2.6	1.5	0.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49	592	19.5	29.6	706	726	19.6	27.3	0.0	-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771	910	27.5	45.6	1,050	1,317	29.1	49.5	1.6	3.9
전기·운수·통신·금융	322	127	11.5	6.4	504	201	14.0	7.5	2.5	1.1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국가데이터처

2)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

-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여성 취업자가 592,175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중 또한 8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소매업 44.8%(415,558명), 숙박 및 음식점업 61.9%(322,593명), 교육서비스업 70.2%(354,758명) 등에서 여성 취업자의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여성 취업자는 33.2% 증가(2016년: 2,405,138명, 2025년: 3,204,305명)하였다. 산업별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79.9%로 가장 큰 증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중 또한 8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7.9%(80,619명 증가), 도매 및 소매업 20.5%(70,812명 증가), 교육서비스업 22.8%(65,843명 증가) 순으로 여성 취업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면 농업·임업 및 어업은 43.7% 감소하였으며, 일부 전통 산업과 비시장 활동 영역에서 여성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2025년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6년 대비 여성 취업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건·복지 및 서비스업에서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기술·지식 기반 산업에서도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다.

〈표 3-9〉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 전체

(단위: 명, %)

경기도 산업	2016			2025			여성취업자 증감(명)	증가율 (%)
	전체취업자 수(명)	여성취업자 수(명)	여성비율 (%)	전체취업자 수(명)	여성취업자 수(명)	여성비율 (%)		
농업, 임업 및 어업	176,253	68,356	38.8	113,244	38,502	34.0	-29,854	-43.7
광업	1,551	178	11.5	1,561	384	24.6	206	115.4
제조업	1,284,228	362,971	28.3	1,351,901	395,382	29.2	32,411	8.9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12,098	1,736	14.3	15,695	4,209	26.8	2,473	142.5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25,283	4,965	19.6	34,066	4,695	13.8	-270	-5.4
건설업	422,763	34,006	8.0	561,609	65,816	11.7	31,809	93.5
도매 및 소매업	825,490	344,746	41.8	926,634	415,558	44.8	70,812	20.5
운수 및 창고업	345,040	41,378	12.0	465,006	70,511	15.2	29,133	70.4
숙박 및 음식점업	450,294	268,230	59.6	521,414	322,593	61.9	54,362	20.3
정보통신업	224,230	54,427	24.3	373,486	111,350	29.8	56,923	104.6
금융 및 보험업	184,777	90,708	49.1	188,439	95,923	50.9	5,215	5.7
부동산업	134,324	42,912	31.9	170,620	65,113	38.2	22,201	51.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324,872	91,755	28.2	504,103	172,373	34.2	80,619	87.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343,138	133,135	38.8	405,751	161,871	39.9	28,736	21.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73,068	56,007	32.4	256,173	114,194	44.6	58,187	103.9
교육 서비스업	421,934	288,916	68.5	505,113	354,758	70.2	65,843	22.8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404,237	329,160	81.4	718,832	592,175	82.4	263,015	79.9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12,310	53,863	48.0	152,714	76,827	50.3	22,964	42.6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250,869	119,689	47.7	263,867	128,930	48.9	9,240	7.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18,227	17,355	95.2	11,475	11,170	97.3	-6,185	-35.6
국제 및 외국기관	5,344	645	12.1	6,592	1,971	29.9	1,327	205.8
전체	6,140,330	2,405,138	39.2	7,548,295	3,204,305	42.5	799,167	33.2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5년 경기도 여성 취업자는 남부 237.8만 명, 북부 82.6만 명으로 나타나 남부가 북부보다 약 3배 큰 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로는 남북부 모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성 취업자가 집중되었으며, 북부는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남부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여성 취업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 북부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 취업자가 16.5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11.9만 명, 교육서비스업 9.4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 여성 취업자는 8.8만 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다음으로 큰 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여성 비중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 남부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 취업자가 42.7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32.3만 명, 도매 및 소매업 29.7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여성 취업자가 26.1만 명으로 나타났다. 남부는 서비스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여성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남북부의 산업구조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 고용 역시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 측면에서는 남부가 모든 산업에서 북부보다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남부 지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 규모가 북부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2016년과 비교할 경우, 여성 취업자는 북부 32.8%, 남부 33.4% 증가하여 두 지역 모두 유사한 증가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감소하여 산업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고령화 및 돌봄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성 취업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하면, 2025년 경기도 여성 취업 구조는 남북부 모두 서비스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성 고용이 특정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구조 자체는 유사하나, 산업 규모와 여성 취업자 규모 측면에서는 남부가 북부보다 크게 나타나 지역 간 산업 및 노동시장 규모 차이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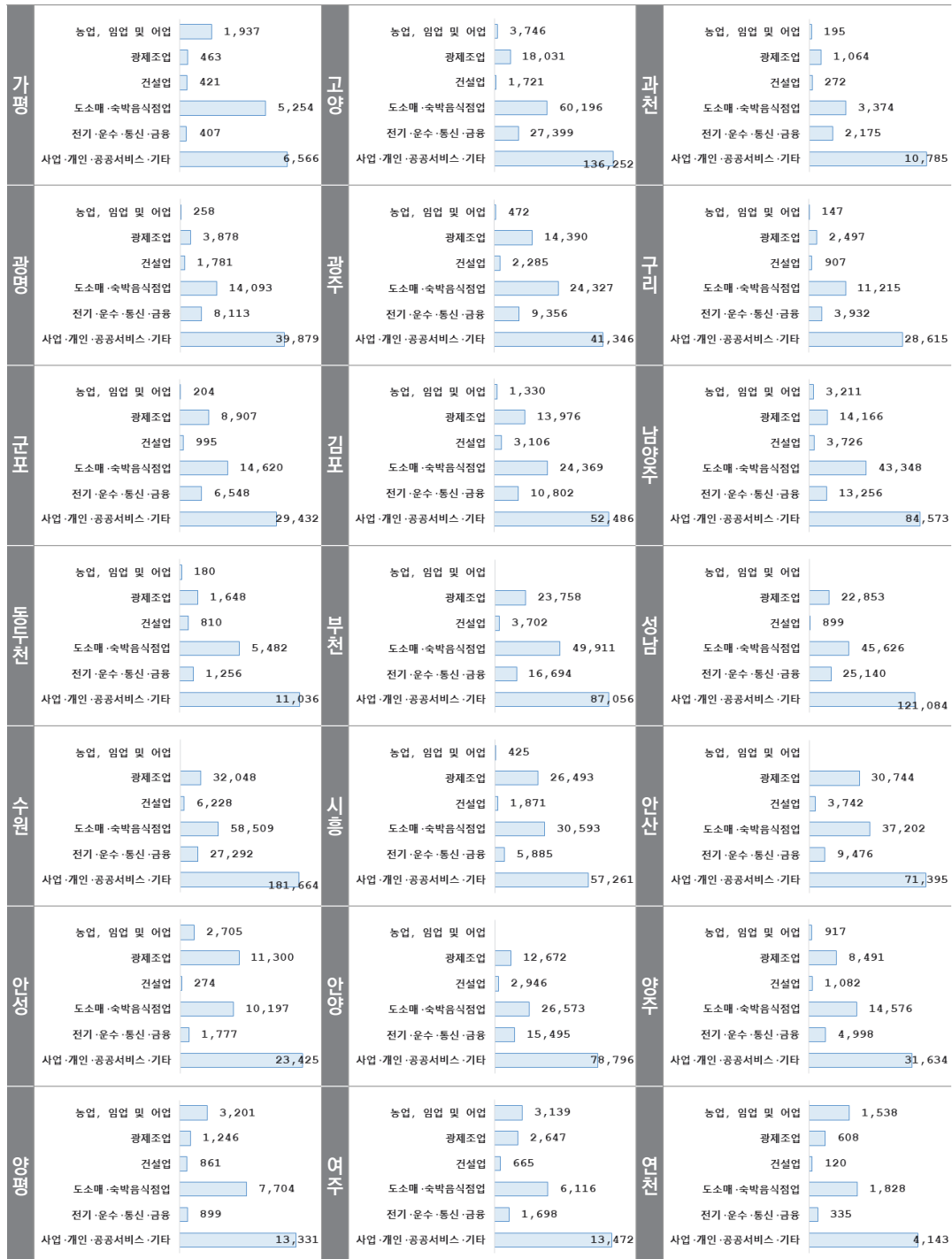
<표 3-10>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남·북부

(단위: 명, %)

경기도	2016			2025			여성취업자 증감(명)	증가율 (%)
	전체취업자수 (명)	여성취업자 수(명)	여성비율 (%)	전체취업자수 (명)	여성취업자 수(명)	여성비율 (%)		
남	농업, 임업 및 어업	59,735	22,910	38.4	41,084	14,954	-7,956	-34.7
	광업	287		0.0	1,250	384	384	
	제조업	260,199	82,232	31.6	231,506	72,198	-10,033	-12.2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3,326	135	4.1	3,861	1,109	974	722.0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7,232	1,376	19.0	11,805	1,455	79	5.8
	건설업	113,124	7,836	6.9	140,133	14,842	7,006	89.4
	도매 및 소매업	232,861	101,802	43.7	276,272	118,711	16,909	16.6
	운수 및 창고업	89,331	8,853	9.9	126,858	16,794	7,941	89.7
	숙박 및 음식점업	122,428	69,421	56.7	145,047	88,280	18,860	27.2
	정보통신업	60,200	17,987	29.9	81,106	23,300	5,313	29.5
	금융 및 보험업	48,372	23,361	48.3	62,454	31,201	7,841	33.6
	부동산업	35,477	10,846	30.6	51,699	20,285	9,440	87.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58,080	18,263	31.4	91,666	34,455	16,192	88.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75,211	30,273	40.3	86,962	38,609	8,336	27.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41,888	12,344	29.5	65,726	27,547	15,203	123.2
	교육 서비스업	103,373	70,365	68.1	136,362	94,244	23,879	33.9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122,308	95,753	78.3	203,476	165,487	69,734	72.8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29,116	14,294	49.1	47,662	21,851	7,557	52.9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67,786	30,518	45.0	74,593	36,727	6,210	20.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4,149	3,324	80.1	3,689	3,689	365	11.0
	국제 및 외국기관	3,458	319	9.2	1,464		-319	-100.0
	전체	1,537,939	622,209	40.5	1,884,675	826,124	203,915	32.8
북	농업, 임업 및 어업	116,519	45,447	39.0	72,161	23,549	-21,898	-48.2
	광업	1,264	178	14.1	311		-178	-100.0
	제조업	1,024,029	280,740	27.4	1,120,395	323,184	42,444	15.1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8,772	1,601	18.2	11,834	3,100	1,500	93.7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8,051	3,589	19.9	22,261	3,240	-349	-9.7
	건설업	309,639	26,170	8.5	421,476	50,973	24,804	94.8
	도매 및 소매업	592,629	242,944	41.0	650,362	296,847	53,903	22.2
	운수 및 창고업	255,710	32,525	12.7	338,148	53,717	21,192	65.2
	숙박 및 음식점업	327,866	198,810	60.6	376,367	234,312	35,502	17.9
	정보통신업	164,030	36,440	22.2	292,381	88,050	51,610	141.6
	금융 및 보험업	136,405	67,347	49.4	125,985	64,722	-2,625	-3.9
	부동산업	98,847	32,066	32.4	118,921	44,827	12,761	39.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266,792	73,491	27.5	412,436	137,918	64,427	87.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267,927	102,863	38.4	318,789	123,263	20,400	19.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31,180	43,663	33.3	190,447	86,647	42,984	98.4
	교육 서비스업	318,561	218,551	68.6	368,751	260,514	41,964	19.2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281,929	233,407	82.8	515,355	426,688	193,281	82.8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83,194	39,569	47.6	105,053	54,977	15,407	38.9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183,082	89,172	48.7	189,274	92,202	3,031	3.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14,079	14,031	99.7	7,786	7,480	-6,551	-46.7
	국제 및 외국기관	1,886	326	17.3	5,128	1,971	1,645	504.7
	전체	4,602,391	1,782,929	38.7	5,663,620	2,378,181	595,253	33.4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3-4] 시군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2025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3) 직종별 여성 취업자 현황

- 2025년 기준 경기도 전체 취업자는 754.8만 명이며, 이 중 여성 취업자는 320.4만 명으로 여성 비중은 42.5%이다.
-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절대 규모 기준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91.5만 명)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직종으로 나타났다.
 - 사무 종사자는 74.3만 명(여성 비중 51.4%)으로 여성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서비스 종사자는 55.9만 명(여성 비중 67.8%)으로 전 직종 중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여성 집중 직종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단순 노무 종사자(44.3만 명, 47.7%)와 판매 종사자(33.6만 명, 48.6%) 역시 여성 취업자 규모가 큰 직종으로 나타났다.
 - 반면 관리자 직종은 1.2만 명(17.0%)으로 여성 비중이 낮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6.2만 명, 9.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9.7만 명, 12.0%) 등 제조·기능 중심 직종에서도 여성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리자 직종은 절대 규모는 작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 2016년 대비 전체 여성 취업자는 240.5만 명에서 320.4만 명으로 약 79.9만 명 (33.2%) 증가하였다.
 - 직종별로는 관리자 직종이 121.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절대 규모 (1.2만 명)는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0.6만 명, 50.3%), 서비스 종사자(17.4만 명, 45.1%), 사무 종사자(22.9만 명, 44.4%) 등 주요 직종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2.6만 명(41.1%)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도 1.5만 명(13.5%) 감소하여 농림어업 및 일부 기능직 중심 직종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여성 취업자는 전문가, 사무, 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특히 서비스 직종은 여성 비중이 높고(67.8%), 전문직은 규모가 가장 큰 특징을 보인다. 또한, 2016년 대비 여성 취업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관리자 직종의 여성 비중은 여전히 낮고 농림어업 및 기능직에서는 감소하여 직종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표 3-11〉 직종별 여성 취업자 현황: 전체

(단위: 명, %)

경기도 전체	2016년			2025년			여성취업자 증감(명)	증가율 (%)
	전체취업자 수(명)	여성취업자 수(명)	여성비율 (%)	전체취업자 수(명)	여성취업자 수(명)	여성비율 (%)		
관리자	52,628	5,302	10.1	69,270	11,764	17.0	6,462	12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84,952	609,092	44.0	2,015,269	915,417	45.4	306,325	50.3
사무 종사자	1,238,617	514,240	41.5	1,445,917	742,782	51.4	228,541	44.4
서비스 종사자	585,028	384,860	65.8	823,875	558,613	67.8	173,753	45.1
판매 종사자	680,477	313,270	46.0	692,402	336,163	48.6	22,893	7.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67,550	63,280	37.8	120,256	37,294	31.0	-25,985	-4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39,638	55,434	10.3	642,354	61,687	9.6	6,253	11.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88,774	112,641	14.3	809,838	97,440	12.0	-15,201	-13.5
단순 노동 종사자	702,667	347,019	49.4	929,113	443,144	47.7	96,125	27.7
전체	6,140,330	2,405,138	39.2	7,548,295	3,204,305	42.5	799,167	33.2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남북부의 직종별 취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기준 경기도 북부 전체 취업자는 188.5만 명이며, 이 중 여성은 82.6만 명으로 여성 비중은 43.8%로 나타났다. 남부는 전체 취업자 566.4만 명 중 여성 237.8만 명으

로 여성 비중은 42.0%로 확인되었다. 북부의 여성 비중이 남부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남북부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여성 취업자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직종별 여성 취업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북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3,534명), 사무 종사자(186,637명), 서비스 종사자(159,819명), 단순 노무 종사자(108,123명) 순으로 여성 취업자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691,883명), 사무 종사자(556,145명), 서비스 종사자(398,794명), 단순 노무 종사자(335,021명) 순으로 나타나 북부와 유사하게 전문가·사무·서비스 직종 중심 구조를 보였으나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남부가 더 크게 나타났다.
 - 여성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서비스 종사자에서 여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북부 68.6%, 남부 67.5%). 사무 종사자 역시 북부 52.2%, 남부 51.1%로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관리자 직종의 경우 남부(18.5%)가 북부(11.8%)보다 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북부 11.8%, 남부 8.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북부 6.6%, 남부 13.6%) 등 생산·기능 중심 직종에서는 여성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 2016년 대비 2025년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북부와 남부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에서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북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9.3%(73,777명), 서비스 종사자 47.9%(51,780명), 사무 종사자 44.5%(57,471명)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남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6%(232,549명), 사무 종사자 44.4%(171,070명), 서비스 종사자 44.1%(121,973명) 순으로 증가하여 두 지역의 증가 패턴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관리자 직종은 남부 114.9%, 북부 170.1%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절대 규모는 남부가 더 크게 나타났다.
 -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북부 32.4%(6,925명), 남부 45.5%(19,060명) 감소하였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북부에서 40.7%(8,280명) 감소하여 남부의 7.5%(6,921명)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북부 지역의 제조업 및 생산직 고용구조 변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두 지역 모두 전문가·사무·서비스 직종 중심의 유사한 여성 취업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여성 비중 측면에서 북부(43.8%)가 남부(42.0%)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 둘째, 관리자 직종의 여성 비중은 남부(18.5%)가 북부(11.8%)보다 높아 남부에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셋째,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남부가 전 직종에 걸쳐 북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남부(691,883명)와 북부(223,534명)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2025년 기준 경기도 남북부 여성 취업자는 전문가·사무·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지역의 직종별 구조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절대 규모와 관리직 여성 비중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2016년 대비 두 지역 모두 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는 감소하였다.

〈표 3-12〉 직종별 여성 취업자 현황: 남·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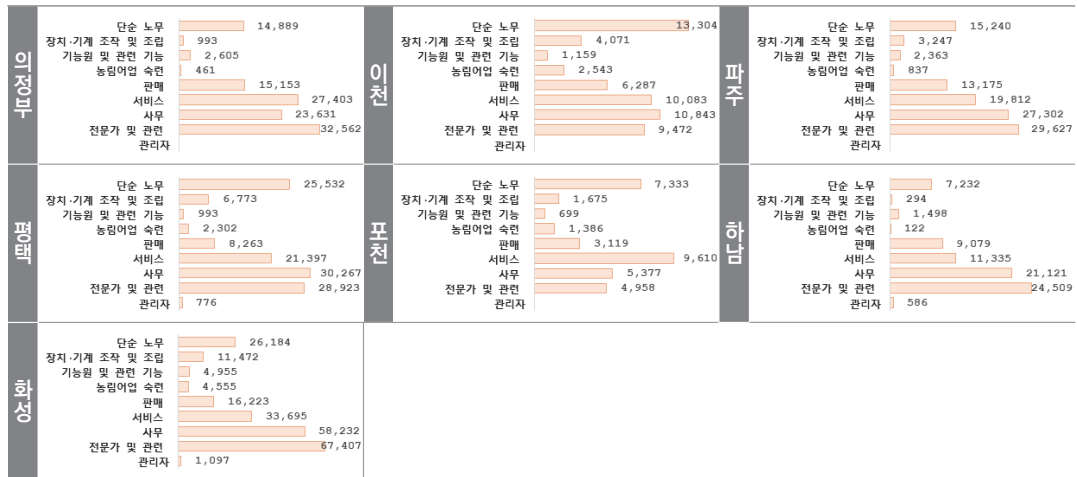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5년			여성취업자 증감(명)	증가율 (%)
		전체취업자 (명)	여성취업자 수(명)	여성비율 (%)	전체취업자 (명)	여성취업자 수(명)	여성비율 (%)		
북 부	관리자	11,860	675	5.7	15,493	1,823	11.8	1,148	17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1,651	149,757	49.6	442,166	223,534	50.6	73,777	49.3
	사무 종사자	298,458	129,166	43.3	357,463	186,637	52.2	57,471	44.5
	서비스 종사자	162,987	108,039	66.3	233,010	159,819	68.6	51,780	47.9
	판매 종사자	187,848	89,436	47.6	211,782	100,461	47.4	11,025	12.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5,613	21,351	38.4	42,996	14,425	33.5	-6,925	-3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7,545	18,842	12.8	162,603	19,226	11.8	384	2.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7,857	20,356	10.8	181,730	12,076	6.6	-8,280	-40.7
	단순 노무 종사자	184,121	84,588	45.9	237,432	108,123	45.5	23,536	27.8
	전체	1,537,939	622,209	40.5	1,884,675	826,124	43.8	203,915	32.8
남 부	관리자	40,767	4,627	11.3	53,776	9,941	18.5	5,314	114.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83,301	459,335	42.4	1,573,103	691,883	44.0	232,549	50.6
	사무 종사자	940,160	385,075	41.0	1,088,455	556,145	51.1	171,070	44.4
	서비스 종사자	422,040	276,821	65.6	590,865	398,794	67.5	121,973	44.1
	판매 종사자	492,629	223,834	45.4	480,621	235,702	49.0	11,868	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1,937	41,929	37.5	77,260	22,869	29.6	-19,060	-45.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92,093	36,592	9.3	479,752	42,461	8.9	5,869	16.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00,917	92,285	15.4	628,107	85,364	13.6	-6,921	-7.5
	단순 노무 종사자	518,546	262,431	50.6	691,681	335,021	48.4	72,590	27.7
	전체	4,602,391	1,782,929	38.7	5,663,620	2,378,181	42.0	595,253	33.4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3-5] 2025년 직종별 여성 취업자 현황: 시군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다. 빈 일자리 현황

- 경기도 전체 종사자는 502만 7,138명이며, 빈 일자리는 4만 3,710개(빈 일자리율 0.9%)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207만 6,884명(41.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광업·제조업(124만 8,073명, 24.8%), 도소매·음식숙박업(88만 8,606명, 17.7%)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 취업 특성을 함께 살펴보면, 빈 일자리 규모가 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여성 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이 포함된 분야이다.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포함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은 북부 81.3%, 남부 82.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북부 60.9%, 남부 62.3% 수준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 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이 경기도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경기 전체 기준 이직률(6.1%)이 입직률(5.3%)보다 높게 나타나 인력 이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산업군에는 여성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의 채용과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빈 일자리율(0.6%), 입직률(3.1%)과 이직률(2.8%) 모두 전산업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나 인력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북부의 전체 종사자는 104만 2,947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0.7% 수준이며, 빈 일자리는 9,305개(빈 일자리율 0.9%)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5만 3,762명), 도소매·음식숙박업(21만 7,973명), 광업·제조업(21만 3,33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빈 일자리 규모 역시 크게 나타났으나, 빈 일자리율은 0.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빈 일자리율(1.4%), 입직률(5.4%), 이직률(6.5%)이 주요 산업 중 비교적 크게 나타나 인력 이동이 활발한 산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력수급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고용안정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남부의 전체 종사자는 398만 4,191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79.3%를 차지하며, 빈 일자리는 3만 4,405개(빈 일자리율 0.9%)로 경기 전체와 유사한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2만 3,122명), 광업·제조업(103만 4,734명), 도소매·음식숙박업(67만 63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종사자 규모와 빈 일자리 규모가 모두 크게 나타나 해당 산업군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광업·제조업은 빈 일자리율이 1.1%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직률(2.7%)과 이직률(3.3%)은 전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구인 수요는 존재하지만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구인난이 지속되는 산업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산업분야의 여성 취업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빈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남성 중심 직종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기도의 빈 일자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산업군은 종사자 규모와 빈 일자리 규모가 모두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여성 취업자 현황과 연계해 볼 때, 여성 취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서비스 산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광업·제조업은 빈 일자리 규모가 큰 산업군으로 나타나, 산업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취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직무 다변화, 직업훈련 연계,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빈 일자리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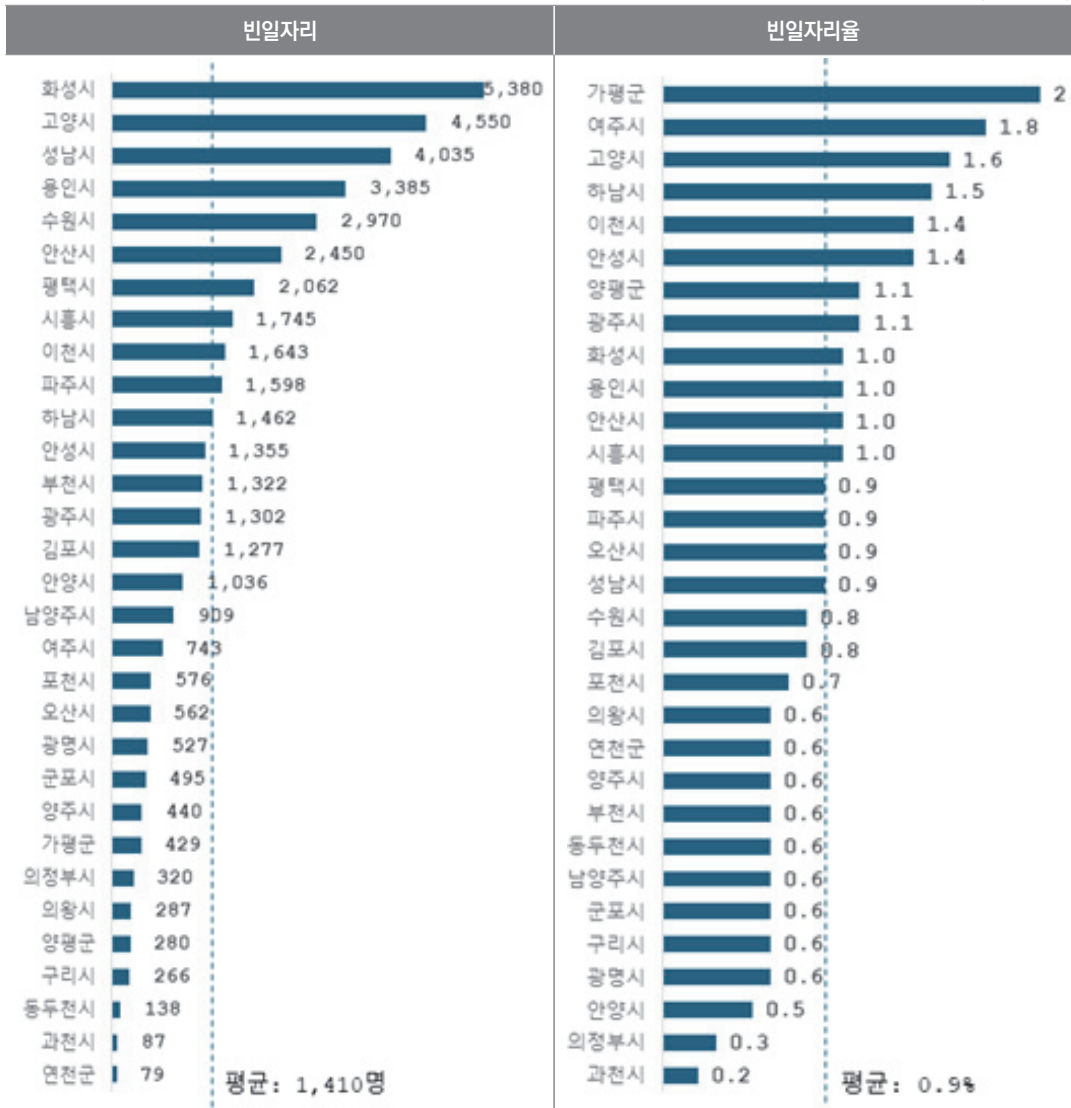
지역	산업	전체종사자 (명)	빈일자리 (명)	빈일자리율 (%)	임직자 (명)	임직률 (%)	이직자 (명)	이직률 (%)
경기 전체	전산업	5,027,138	43,710	0.9	218,692	4.3	220,371	4.4
	광제조업	1,248,073	11,301	0.9	32,522	2.6	35,538	3.2
	건설업	280,174	1,723	0.6	41,105	13.6	42,654	14.3
	도소매·음식숙박업	888,606	13,061	1.6	48,344	5.3	53,488	6.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76,884	10,562	0.6	64,021	3.1	59,902	2.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33,402	7,065	1.6	32,700	6.9	28,790	6.3
경기 북부	전산업	1,042,947	9,305	0.9	49,504	4.3	48,335	4.2
	광제조업	213,339	1,606	0.7	5,783	2.4	6,330	3.0
	건설업	57,599	236	0.4	7,265	10.8	7,770	9.6
	도소매·음식숙박업	217,973	2,238	1.4	11,848	5.4	12,461	6.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53,762	2,475	0.6	13,195	3.1	11,580	2.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0,276	2,751	1.7	11,412	5.6	10,191	4.7
경기 남부	전산업	3,984,191	34,405	0.9	169,188	4.4	172,036	4.5
	광제조업	1,034,734	9,695	1.1	26,739	2.7	29,208	3.3
	건설업	222,575	1,487	0.7	33,840	14.9	34,884	16.5
	도소매·음식숙박업	670,633	10,823	1.7	36,496	5.2	41,027	5.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623,122	8,087	0.6	50,826	3.1	48,322	2.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33,126	4,314	1.6	21,288	7.5	18,599	7.1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2025.1/2), 고용노동부

참고: 수치는 시군 합계 및 평균값임.

[그림 3-6] 시군별 빈 일자리 현황

(단위: 명, %)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2025.1/2), 고용노동부

라. 노동시장 접근성

- 경기도 취업자의 통근 구조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거리 중심의 통근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여성 취업자 320만 명 중 81.2%가 경기도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1.9%는 거주지와 동일 시·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경기도 외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중은 18.8%로 남성(23.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거주지 인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취업 비중이 높고, 장거리 통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의 거주지 내 근무 비중(61.9%)은 남성(50.1%)보다 약 11.8%p 높게 나타나 여성은 거주지 인근 생활권을 중심으로 통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거주지 외 근무 및 경기도 외 통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근 범위가 보다 넓은 구조를 보인다.
- 한편 2016년과 비교할 때, 여성의 통근 구조에 변화가 확인되었다. 여성 취업자 규모는 약 80만 명 증가(2016년 240만 명→2025년 320만 명)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거주지 내 근무 비중은 66.3%에서 61.9%로 감소하였다. 반면, 거주지 외 근무(15.8%→19.3%)와 경기도 외 통근(17.9%→18.8%)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거주지 외 지역으로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통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25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은 여전히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통근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통근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과 비교할 때 통근 범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며,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활권 기반 일자리 확대와 교통 접근성 개선 등 이동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북부와 남부의 특성을 비교했을 때, 북부가 전체적으로 남부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도내 출퇴근 비중이 낮게 나타난 반면, 경기도 내 중 거주지 내 비중은 남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북부의 경우 경기도 밖으로 출퇴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 높아 인접지역인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북부 지역내에서 경기도 내 출퇴근의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는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부 지역 일자리 수요와 특징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으며, 남부 지역에 비해 경기도 내 인접 시군 지역으로의 일자리 연계는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3-14> 경기도 출퇴근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5년	2016년비중(%)	2025년비중(%)	
전체	전체	6,140,330	7,548,295	100.0	100.0	
	경기도내	4,823,944	5,937,144	78.6	78.7	
	-거주지내	3,524,929	4,158,645	57.4	55.1	
	-거주지외	1,299,015	1,778,499	21.2	23.6	
	경기도외	1,316,386	1,611,151	21.4	21.3	
남자	전체	3,735,192	4,343,990	100.0	100.0	
	경기도내	2,849,395	3,336,504	76.3	76.8	
	-거주지내	1,930,445	2,175,293	51.7	50.1	
	-거주지외	918,950	1,161,212	24.6	26.7	
	경기도외	885,797	1,007,486	23.7	23.2	
여자	전체	2,405,138	3,204,305	100.0	100.0	
	경기도내	1,974,549	2,600,640	82.1	81.2	
	-거주지내	1,594,484	1,983,352	66.3	61.9	
	-거주지외	380,065	617,288	15.8	19.3	
	경기도외	430,589	603,665	17.9	18.8	
경기 북부	남자	전체	915,730	1,058,551	100.0	100.0
		경기도내	658,804	767,920	71.9	72.5
		-거주지내	478,680	564,699	52.3	53.3
		-거주지외	180,124	203,221	19.7	19.2
		경기도외	256,926	290,631	28.1	27.5
	여자	전체	622,209	826,124	100.0	100.0
		경기도내	488,509	634,826	78.5	76.8
		-거주지내	410,610	513,137	66.0	62.1
		-거주지외	77,898	121,689	12.5	14.7
		경기도외	133,700	191,297	21.5	23.2
경기 남부	남자	전체	2,819,462	3,285,438	100.0	100.0
		경기도내	2,190,591	2,568,584	77.7	78.2
		-거주지내	1,451,764	1,610,594	51.5	49.0
		-거주지외	738,827	957,990	26.2	29.2
		경기도외	628,871	716,854	22.3	21.8
	여자	전체	1,782,929	2,378,181	100.0	100.0
		경기도내	1,486,040	1,965,813	83.3	82.7
		-거주지내	1,183,873	1,470,215	66.4	61.8
		-거주지외	302,167	495,598	16.9	20.8
		경기도외	296,889	412,368	16.7	17.3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3-7] 시군 산업별 여성 출퇴근 현황(2025년)



영양	○ 경기도내	24,383	연주	○ 경기도내	26,857	전주	○ 경기도내	8,352
	- 거주지내	22,509		- 거주지내	23,512		- 거주지내	7,294
	- 거주지외	1,874		- 거주지외	3,344		- 거주지외	1,057
	○ 경기도외	2,858		○ 경기도외	880		○ 경기도외	219
주산	○ 경기도내	55,756	영이	○ 경기도내	198,324	이화	○ 경기도내	27,850
	- 거주지내	31,485		- 거주지내	133,396		- 거주지내	10,248
	- 거주지외	24,271		- 거주지외	64,929		- 거주지외	17,602
	○ 경기도외	1,953		○ 경기도외	40,629		○ 경기도외	7,579
이전부	○ 경기도내	83,947	이전	○ 경기도내	56,046	한자	○ 경기도내	96,101
	- 거주지내	65,923		- 거주지내	51,168		- 거주지내	72,615
	- 거주지외	18,024		- 거주지외	4,879		- 거주지외	23,486
	○ 경기도외	33,751		○ 경기도외	1,717		○ 경기도외	15,502
평택	○ 경기도내	118,954	포천	○ 경기도내	32,593	이강	○ 경기도내	44,557
	- 거주지내	103,290		- 거주지내	29,736		- 거주지내	35,112
	- 거주지외	15,664		- 거주지외	2,857		- 거주지외	9,445
	○ 경기도외	6,273		○ 경기도외	1,565		○ 경기도외	31,218
화성	○ 경기도내	209,340						
	- 거주지내	150,536						
	- 거주지외	58,805						
	○ 경기도외	14,479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마. 소결

- 경기도 노동시장은 서비스업 중심 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중심 구조 속에서도 제조업 기반이 유지되는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에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여성 종사자는 여전히 돌봄·서비스업 중심으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여성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 비중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여성 취업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이직률이 임직률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 집중 산업이 포함된 산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 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별 여성 일자리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의 생활권 중심 통근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역 기반 취업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역별로는 남부와 북부 간 산업구조 차이가 여성 일자리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부 모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성 취업이 이루어졌으나, 북부는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여성 취업 구조가 두드러진 반면, 남부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여성 취업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성 일자리 정책 역시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여성 일자리정책은 단순 취업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여성의 지속근로와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가 결혼·출산 중심에서 육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뿐 아니라 경력 유지와 장기근속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강화가 중요하다. 또한 여성 집중 산업의 높은 이직과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취업 이후 고용 유지와 근로환경 개선까지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여성 일자리사업 측면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여성은 디지털·신산업 분야 진입 지원,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과 경력 회복 중심 지원, 중장년여성은 돌봄·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의 생활권 중심 취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기반 일자

리 발굴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직업교육훈련 역시 지역 산업 수요와 여성 인력 특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남부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활용, 데이터 기반 업무, AI 활용 사무·행정, 콘텐츠 기획 등 여성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직무 중심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북부는 제조업과 돌봄·생활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보건·돌봄·요양·생활서비스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연계형 훈련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전공자와 경력단절여성도 참여 가능한 단계형·수준별 훈련체계와 온라인·혼합형 교육 확대를 통해 여성의 돌봄 부담과 시간 제약을 고려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종합하면, 향후 경기도 여성 일자리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 경력개발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부 산업구조와 여성 노동시장 특성 차이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여성 일자리사업과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분석

Ⅳ. 경기도 여성 일자리

4. 경기도 여성 일자리

가. 여성 경제활동 현황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⁵ 및 고용률⁶

- 2025년 기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57.1%, 경기도 57.5%로 나타나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수준이 전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6.3%로 전국(6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과 전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북부(53.7%)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남부(64.7%)가 북부(62.8%)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남부 지역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과 비교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과 경기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2.2%에서 57.1%로 4.9%p 상승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52.6%에서 57.5%로 4.9%p 상승하였다. 특히 경기 북부와 남부는 각각 7.0%p, 7.3%p 상승하여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최근 경기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종합하면,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와 남부 모두 최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경기도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 고용 증가와 함께 지역 노동시장 내 여성 인력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⁵ 만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⁶ 취업자가 15세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 X 100.(국가데이터처)

〈표 4-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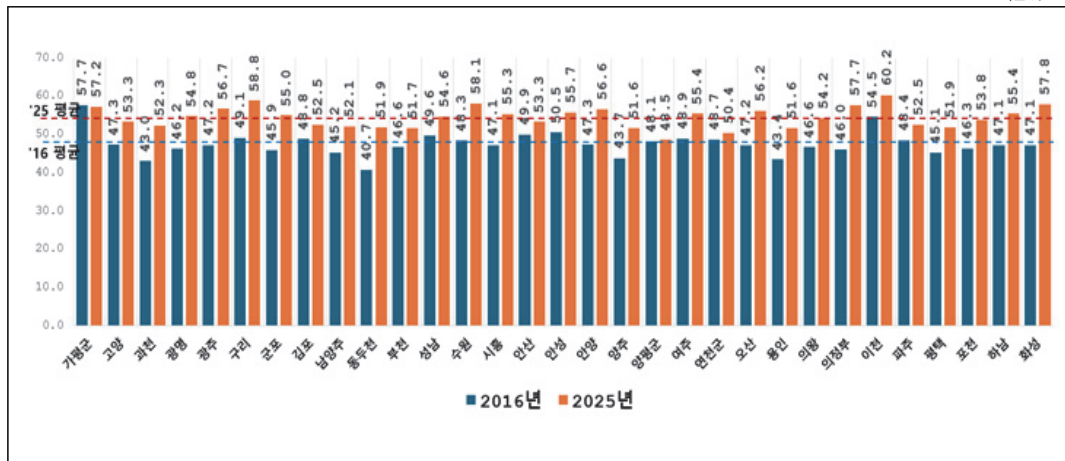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2016년		2025년		증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국	62.9	52.2	65.1	57.1	2.2	4.9
경기도	64.4	52.6	66.3	57.5	1.9	4.9
-북부	59.1	46.7	62.8	53.7	3.7	7.0
-남부	61.3	47.5	64.7	54.8	3.4	7.3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1] 시군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5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전국 55.6%, 경기도 56.2%로 나타나 경기도 여성의 고용 수준이 전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전체 고용률은 64.5%로 전국 (6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과 전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부의 여성 고용률은 52.8%로 북부(51.9%)보다 0.9%p 높게 나타났다. 전체 고용률 역시 남부(62.5%)가 북부(60.5%)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남부 지역의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과 비교하면 여성 고용률은 전국과 경기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여성 고용률은 50.2%에서 55.6%로 5.4%p 상승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50.1%에서 56.2%로 6.1%p 상승하였다. 특히 경기 북부와 남부는 각각 6.7%p, 7.3%p 상승하여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최근 경기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종합하면, 경기도 여성 고용률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와 남부 모두 최근 여성 고용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기도 내 여성 고용 기반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 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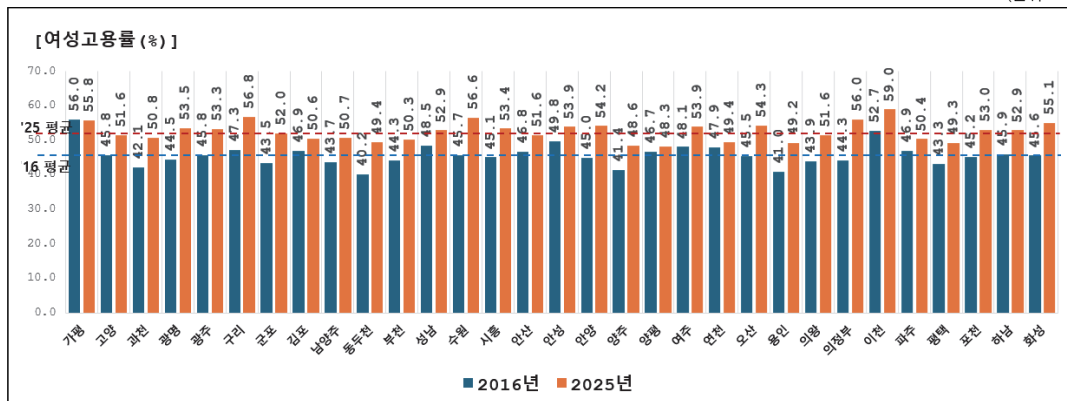
(단위: %)

고용률	2016년		2025년		증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국	60.5	50.2	63.2	55.6	2.7	5.4
경기도	61.5	50.1	64.5	56.2	3.0	6.1
-북부	57.2	45.2	60.5	51.9	3.3	6.7
-남부	58.9	45.4	62.5	52.8	3.6	7.3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2] 시군별 여성 고용률

(단위: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5년 기준 전체 취업자는 전국 2,808만 1,556명, 경기도 754만 8,29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 취업자는 전국 1,235만 966명, 경기도 320만 4,305명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여성 취업자는 전국 여성 취업자의 약 25.9% 수준으로, 경기도가 여성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부의 여성 취업자는 237만 8,181명으로 북부(82만 6,124명)의 약 2.9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규모 역시 남부(566만 3,620명)가 북부(188만 4,675명)보다 크게 나타나, 경기도 여성 취업이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과 비교하면 여성 취업자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여성 취업자는 1,036만 6,136명에서 1,235만 966명으로 198만 4,830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1%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성 취업자는 240만 5,138명에서 320만 4,305명으로 79만 9,167명 증가하여 전국보다 높은 3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경기도 여성 취업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기 북부와 남부 모두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북부 여성 취업자는 62만 2,209명에서 82만 6,124명으로 20만 3,915명 증가하여 32.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남부 역시 178만 2,929명에서 237만 8,181명으로 59만 5,253명 증가하여 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는 여성 취업자 규모와 증가 규모 모두 북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종합하면, 경기도 여성 취업자는 전국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부와 남부 모두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경기도 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여성 취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 고용 규모와 노동시장 내 여성 인력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 여성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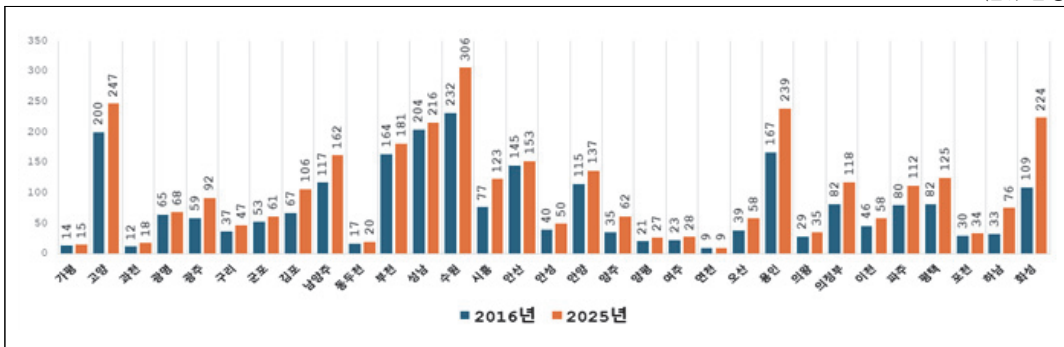
(단위:명, %)

취업자	2016년		2025년		증감		증감률(%)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국	25,265,973	10,366,136	28,081,556	12,350,966	2,815,582	1,984,830	11.1	19.1
경기도	6,140,330	2,405,138	7,548,295	3,204,305	1,407,965	799,167	22.9	33.2
-북부	1,537,939	622,209	1,884,675	826,124	346,736	203,915	22.5	32.8
-남부	4,602,391	1,782,929	5,663,620	2,378,181	1,061,229	595,253	23.1	33.4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3] 시군별 여성 취업자

(단위: 천 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2) 경력단절여성 현황

- 2025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전국 740만 2,779명, 경기도 215만 1,25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전국 110만 5,196명, 경기도 33만 4,07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은 전국의 약 30.2%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기준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전국 14.9%, 경기도 15.5%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취업여성 비율 역시 전국과 경기도 모두 32.7%로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기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3만 명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이 존재하고 있어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016년과 비교하면 15~54세 기혼여성과 미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력단절여성은 192만 4,306명에서 110만 5,196명으로 81만 9,110명 감소하였으며, 비율 역시 20.5%에서 14.9%로 5.6%p 하락하였다. 경기도 역시 경력단절여성이 52만 9,154명에서 33만 4,072명으로 19만 5,082명 감소하였고, 비율도 21.7%에서 15.5%로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기도는 전국보다 경력단절여성 비율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규모와 비율이 함께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25년 기준에도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5년		증감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전국	15 - 54세 기혼여성	9,375,634	100.0	7,402,779	100.0	-1,972,856	-
	미취업여성	3,726,597	39.7	2,418,535	32.7	-1,308,062	-7.1
	- 경력단절여성	1,924,306	20.5	1,105,196	14.9	-819,110	-5.6
경기도	15 - 54세 기혼여성	2,443,062	100.0	2,151,255	100.0	-291,807	-
	미취업여성	966,379	39.6	702,657	32.7	-263,722	-6.9
	- 경력단절여성	529,154	21.7	334,072	15.5	-195,082	-6.1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5년 기준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은 33만 4,072명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6.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임신·출산(23.2%), 결혼(22.2%), 가족돌봄(4.3%), 자녀의 교육(초등학생, 4.2%) 순으로 나타났다.
- 2016년과 비교하면 결혼과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크게 감소한 반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은 18만 6,115명에서 7만 4,289명으로 11만 1,827명 감소하였으며, 비중 역시 35.2%에서 22.2%로 12.9%p 하락하였다. 임신·출산 역시 15만 5,087명에서 7만 7,339명으로 감소하여 비중이 29.3%에서 23.2%로 6.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14만 3,758명에서 15만 3,874명으로 1만 116명 증가하였으며, 비중 역시 27.2%에서 46.1%로 18.9%p 상승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경력단절 사유가 과거 결혼·임신·출산 중심에서 최근에는 육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자녀의 교육(초등학생)과 가족돌봄(육아 제외)은 전체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돌봄은 비중이 3.7%에서 4.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임신·출산 중심에서 육아 중심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특히, 육아는 전체 경력단절 사유의 46.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난다.

〈표 4-5〉 경력단절 사유

(단위: 명, %)

경기도 경력단절사유	2016년		2025년		증감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결혼	186,115	35.2	74,289	22.2	-111,827	-12.9
임신, 출산	155,087	29.3	77,339	23.2	-77,749	-6.2
자녀의 교육(초등학생)	24,811	4.7	14,098	4.2	-10,713	-0.5
가족돌봄(육아제외)	19,382	3.7	14,473	4.3	-4,910	0.7
육아	143,758	27.2	153,874	46.1	10,116	18.9
전체	529,154	100.0	334,072	100.0	-195,082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나. 경기도 여성 임금

1) 여성 월평균 임금 현황

- 2025년 기준 경기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평균 267만 원이며, 2016년 대비 평균 86만 원 상승하였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322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40대 311만 원, 50대 267만 원, 20대 24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 172만 원, 15~19세 89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임금 수준은 연령 증가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30대를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 특히, 30~40대 여성의 임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경력 축적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나타나 연령대별 임금 격차가 확인되었다. 또한, 50대의 경우 평균 임금 수준은 유지되고 있으나, 30~40대와 비교할 경우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과 비교할 경우, 경기도 여성의 전체 월평균 임금은 181만 원에서 267만 원으로 증가하여 약 86만 원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93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118만 원)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50대 102만 원, 30대 101만 원 증가하였다. 반면, 20대는 69만 원, 60대 이상은 68만 원 증가하였으며, 15~19세는 7만 원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여성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노동시장 내 경력 축적이 이루어지는 30~50대에서 임금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과 고령층은 3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보였으며, 연령대별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25년 경기도 여성의 임금 수준은 30~40대를 중심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여 30~40대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고령층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6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 수준이 상승하였으나, 특히 30~50대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여성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6> 경기도 여성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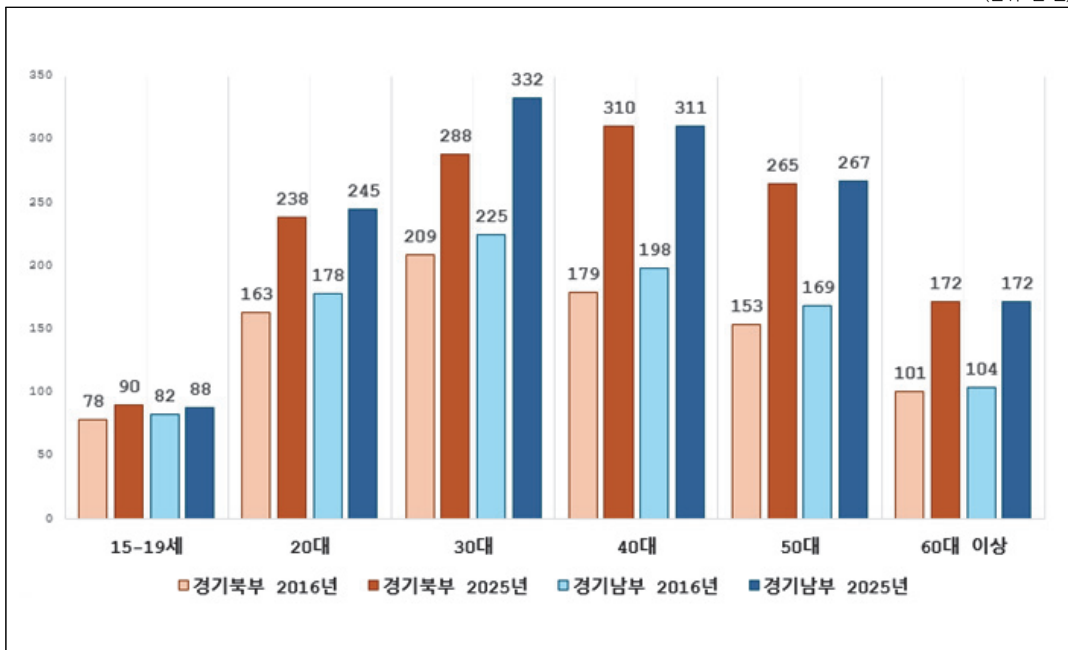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여자	2016년	2025년	증감
	월평균급여(만원)	월평균급여(만원)	
15-19세	81	89	7
20대	174	244	69
30대	221	322	101
40대	193	311	118
50대	165	267	102
60대 이상	104	172	68
전체	181	267	86
북부 평균	170	256	86
남부 평균	185	271	85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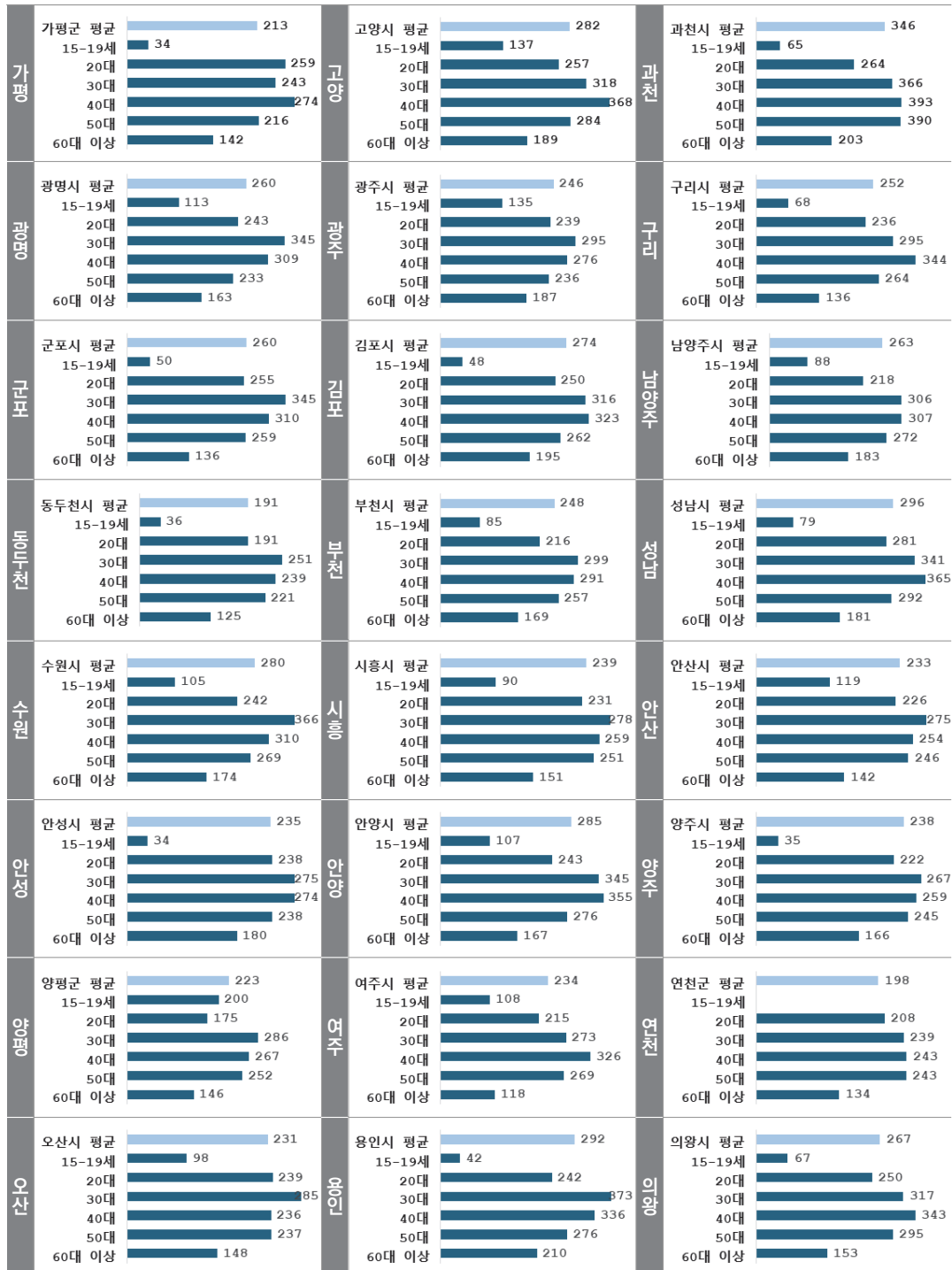
[그림 4-4] 경기 북부 및 남부 여성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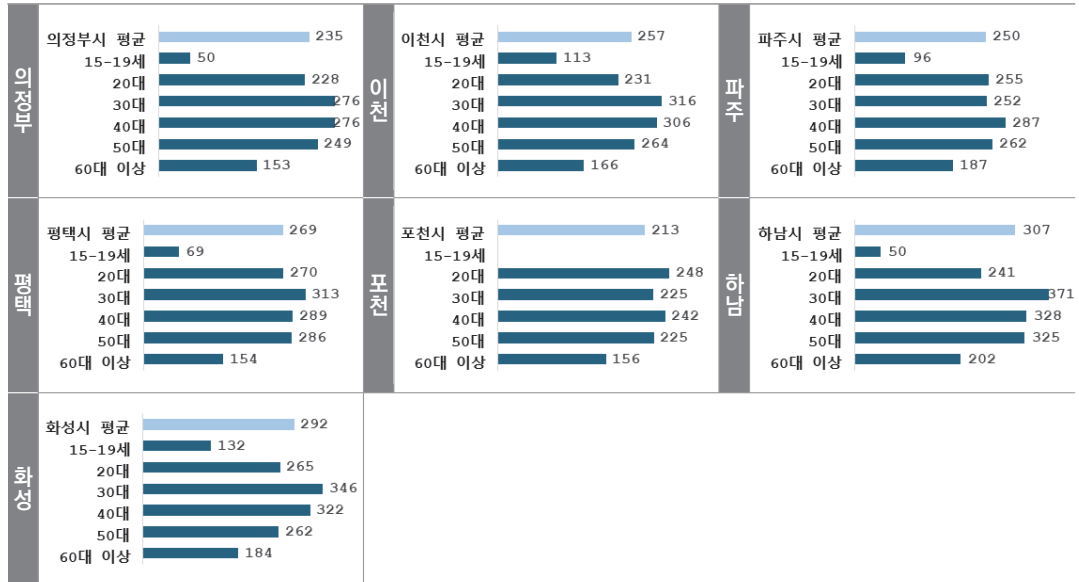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5] 시군 연령별 여성 월평균 임금(2025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2) 산업별 여성 임금 현황

- 산업별⁷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385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84만 원), 정보통신업(372만 원), 제조업(297만 원), 건설업(292만 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81만 원) 등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금을 보인 산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79만 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19만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0만 원), 도·소매업(249만 원) 등이었다. 특히, 여성 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여성 집중 산업과 임금 수준 간 구조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간 수준의 임금으로는 운수 및 창고업(275만 원),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276만 원), 교육서비스업(287만 원), 부동산업(261만 원) 등이었으며, 산업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뚜렷한 구조를 보였다.
- 2016년과 비교할 경우, 경기도 여성의 전체 월평균 임금은 181만 원에서 267만 원으로 증가하여 약 86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49만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정보통신업은 128만 원, 제조업은 117만 원

⁷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여성 종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산업으로, 일부 사례에 따라 평균 임금 수준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107만 원), 부동산업(101만 원), 건설업(97만 원), 운수 및 창고업(82만 원), 도매 및 소매업(83만 원) 등 대부분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경기도 여성의 산업별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전문·기술 기반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임금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 고용이 집중된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산업 간 임금 수준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7> 경기도 여성 산업별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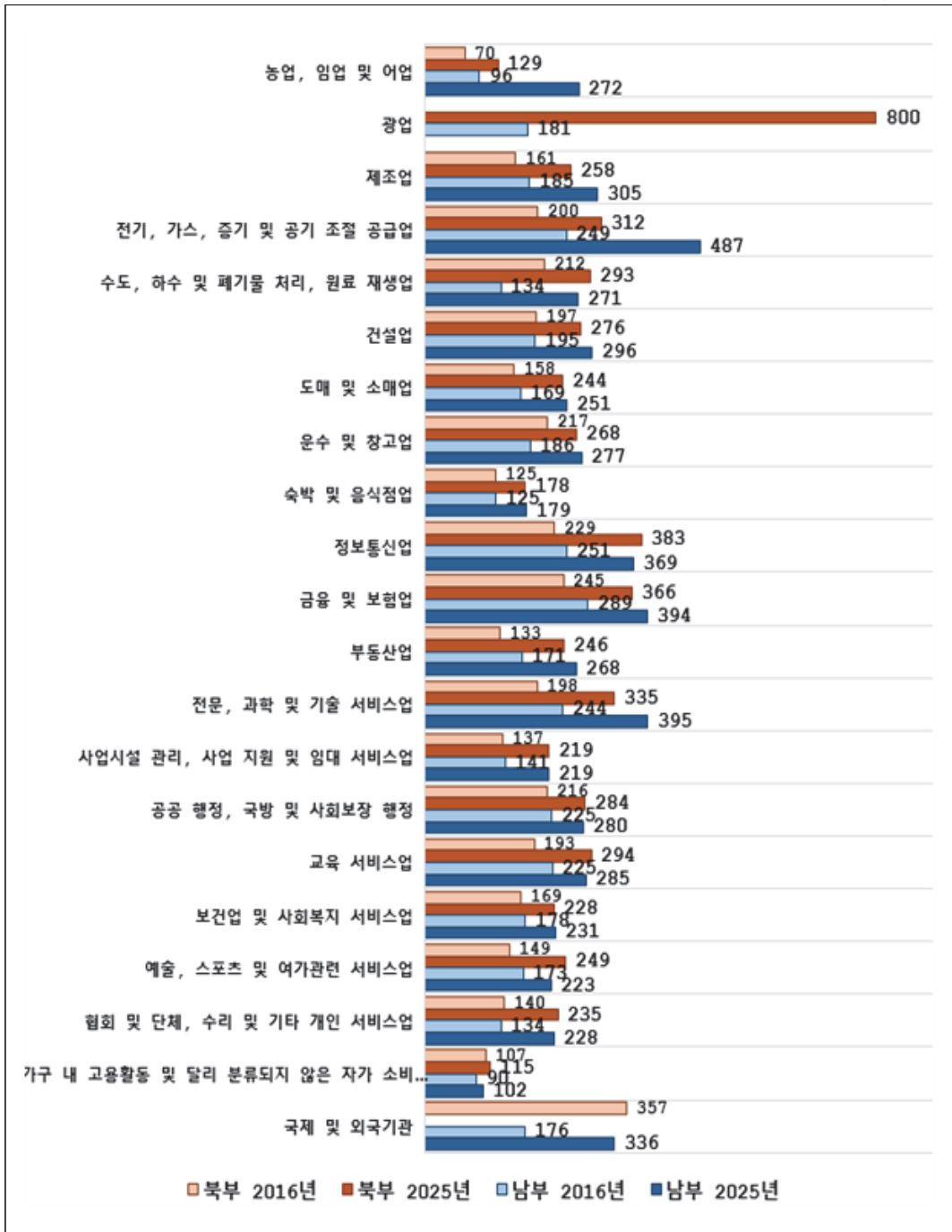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여자	2016년	2025년	증감
	월평균급여(만원)	월평균급여(만원)	
농업, 임업 및 어업	86	216	130
광업	181	800	619
제조업	180	297	11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46	451	2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55	276	121
건설업	195	292	97
도매 및 소매업	166	249	83
운수 및 창고업	193	275	82
숙박 및 음식점업	125	179	54
정보통신업	244	372	128
금융 및 보험업	278	385	107
부동산업	160	261	1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5	384	14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0	219	7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3	281	58
교육 서비스업	217	287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5	230	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7	230	6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6	230	9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2	106	14
국제 및 외국기관	266	336	70
전체	181	267	86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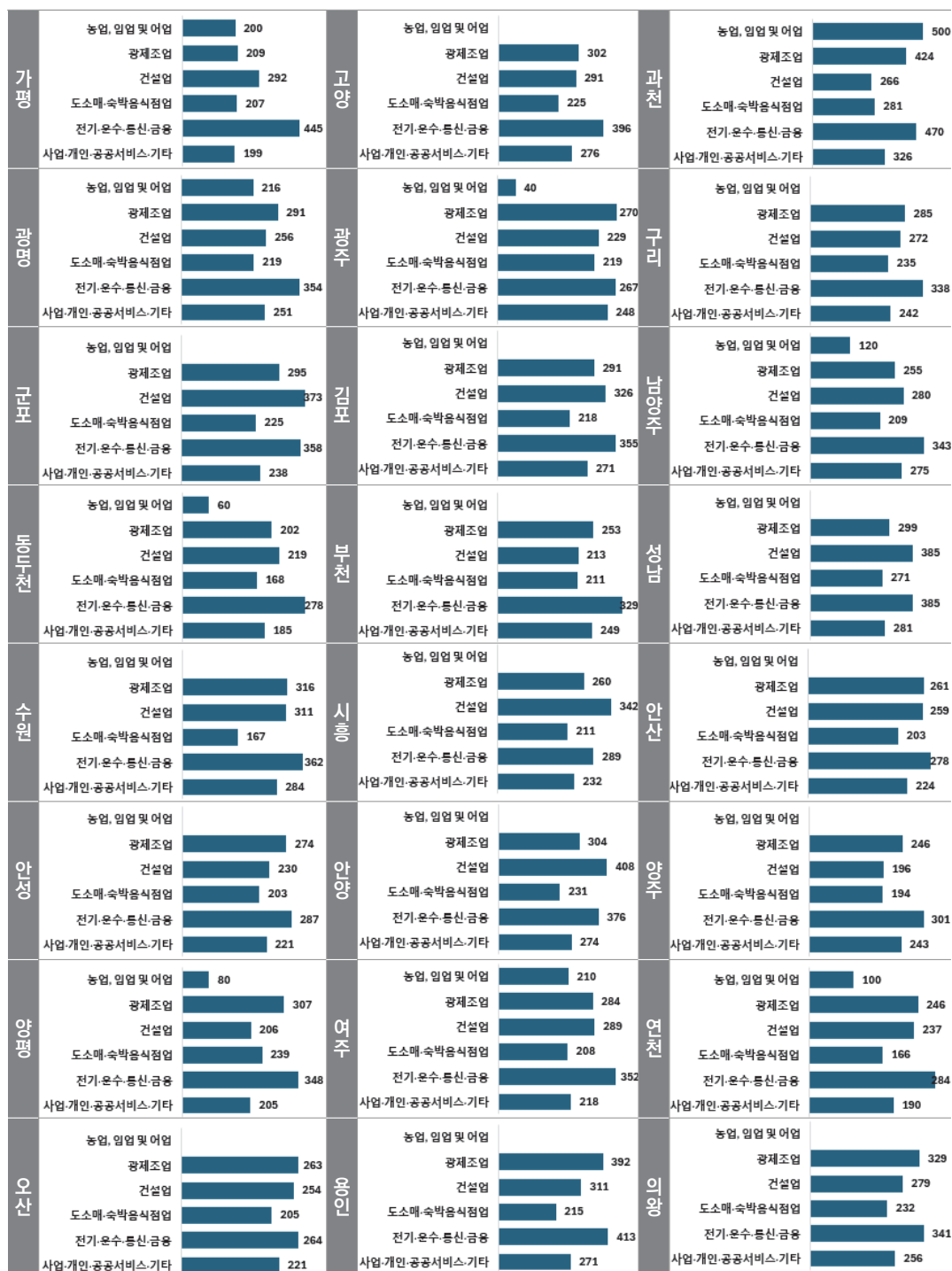
[그림 4-6] 경기 북부 및 남부 산업별 여성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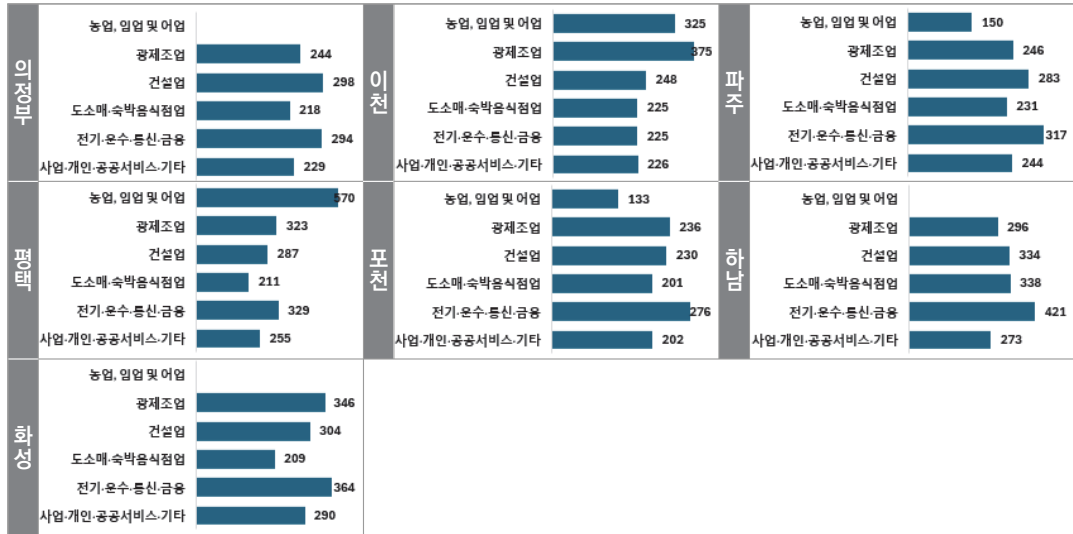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7] 경기도 시군 여성 산업별 월평균 임금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3) 직종별 여성 임금 현황

- 2025년 기준 직종별로는 관리자가 61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31만 원), 사무 종사자(317만 원) 역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273만 원으로 전체 평균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단순 노무 종사자는 161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비스 종사자(186만 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03만 원) 역시 평균보다 낮은 임금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판매 종사자(229만 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32만 원) 또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과 비교할 경우, 전체 평균 임금은 181만 원에서 267만 원으로 86만 원 증가하였다. 직종별로는 관리자가 192만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09만 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7만 원), 사무 종사자(95만 원) 등에서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단순 노무 종사자(47만 원)와 서비스 종사자(53만 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종합하면, 경기도 여성의 직종별 임금 수준은 관리자·전문직·사무직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과 단순 노무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2016년 대비 모든 직종에서 임금이 상승하였으나, 관리자와 전문직 등 고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직종 간 임금 수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8> 경기도 여성 직종별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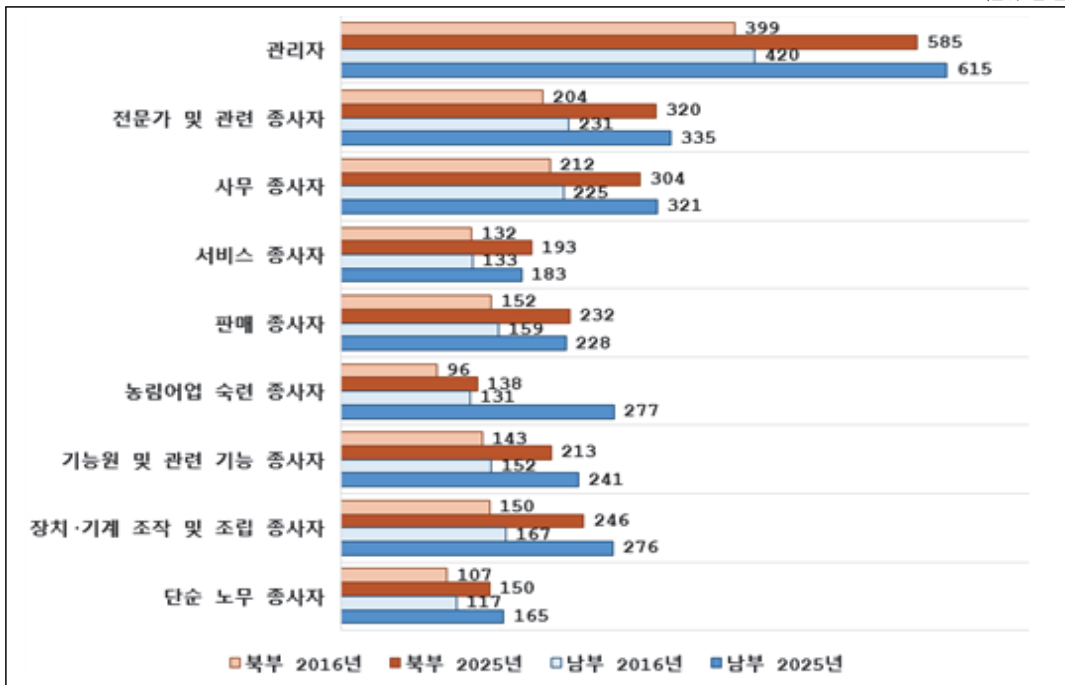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여자	2016년 월평균급여(만원)	2025년 월평균급여(만원)	증감(만원)
관리자	418	610	19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4	331	107
사무 종사자	222	317	95
서비스 종사자	133	186	53
판매 종사자	157	229	7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0	203	9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	232	8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4	273	109
단순 노무 종사자	114	161	47
전체	181	267	86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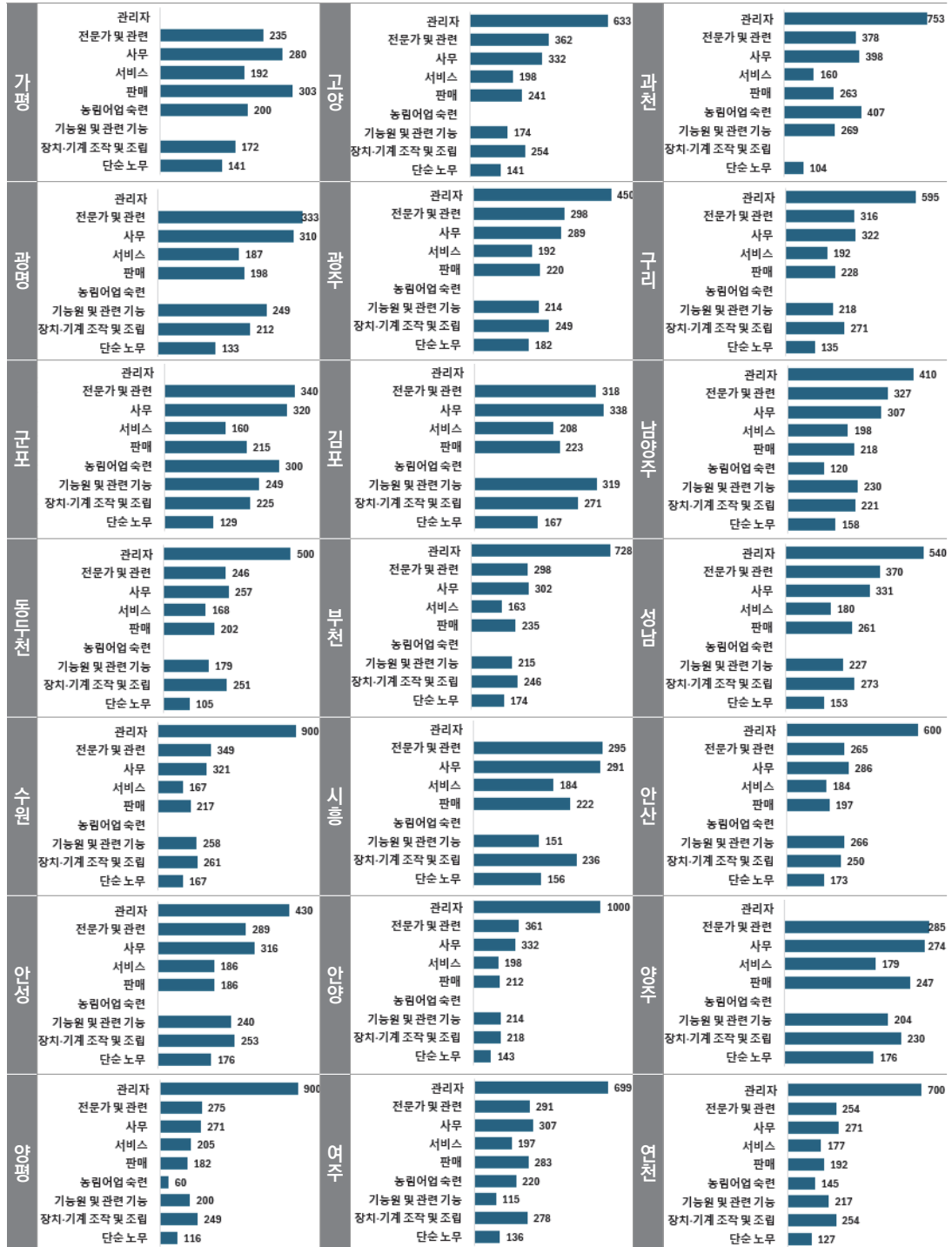
[그림 4-8] 경기 북부 및 남부 직종별 여성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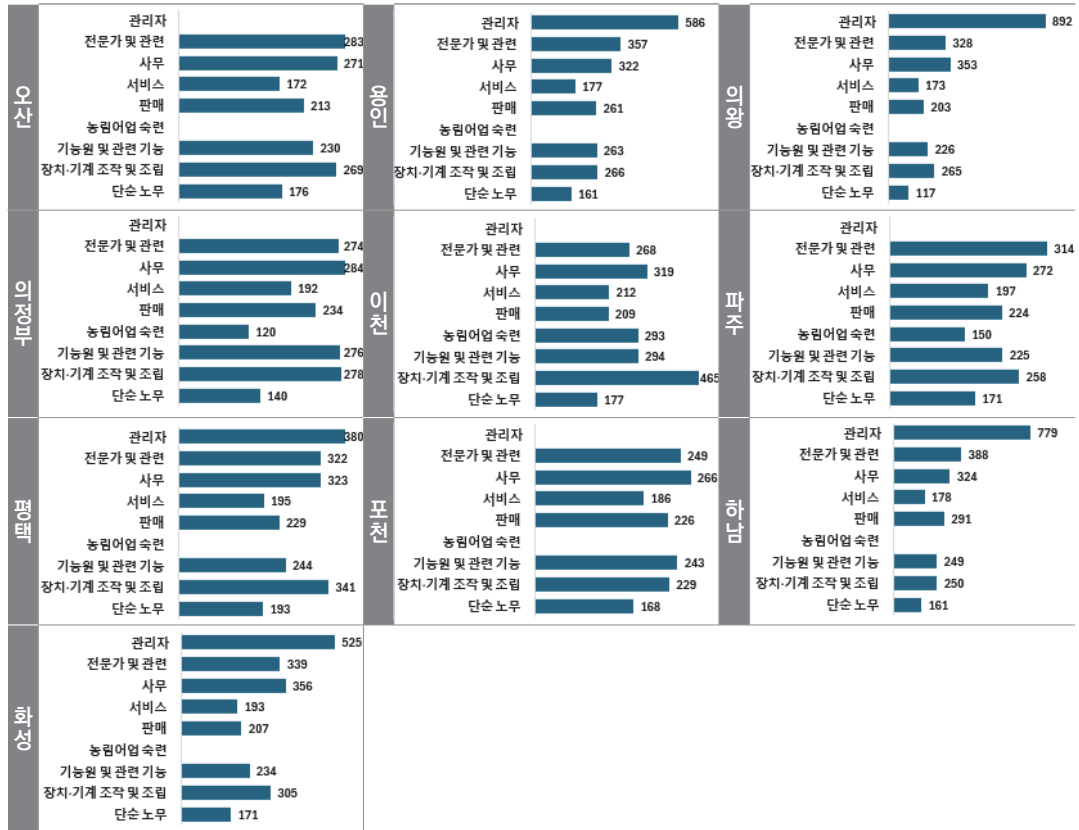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9] 경기도 시군 여성 직종별 월평균 임금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다. 여성 근로시간

1) 평균 근로시간

- 2025년 경기도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2016년 대비 2시간 감소하였다.
- 연령별로는 20대는 36시간, 30~50대는 각각 37시간으로 나타나 핵심 노동연령층(20~50대)의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29시간, 15~19세는 2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평균 근로시간이 핵심 노동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30~50대 여성의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핵심 노동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15~19세와 60대 이상에서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 연령대별 근로 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과 비교할 경우, 경기도 여성의 전체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감소하여 약 2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9세가 28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8시간)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은 34시간에서 29시간으로 5시간 감소하였다. 또한, 20대와 50대는 각각 3시간 감소하였고, 40대는 2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는 2016년과 2025년 모두 37시간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경기도 여성의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연령대별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근로시간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30~50대 핵심 노동연령층은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시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경기도 여성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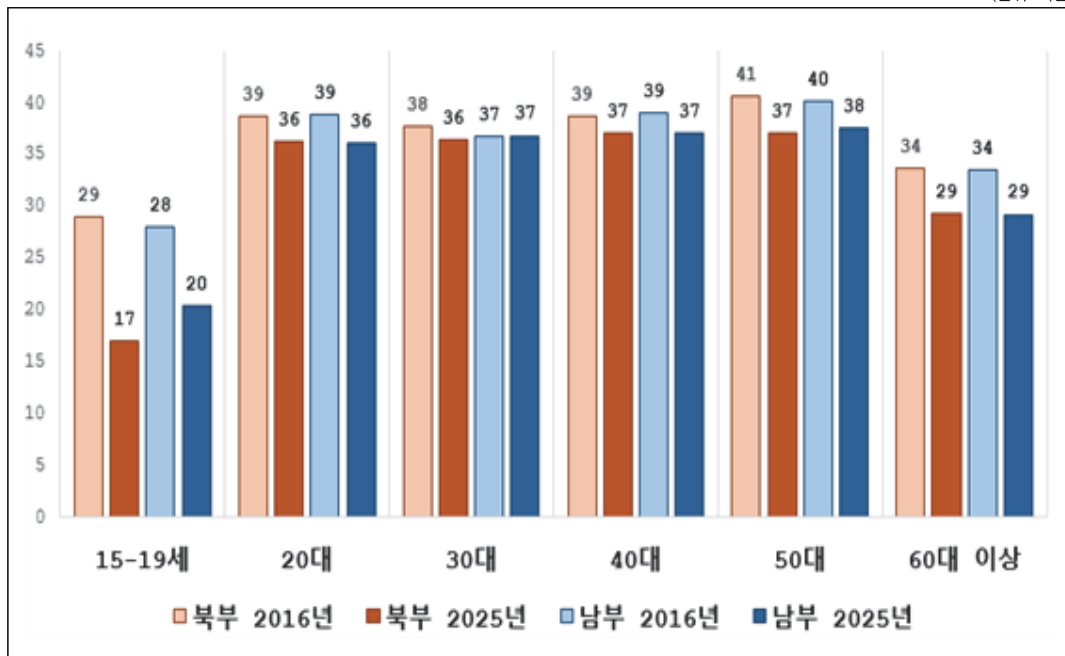
(단위: 시간)

여자	2016년	2025년	증감
	평균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	
15-19세	28	20	-8
20대	39	36	-3
30대	37	37	0
40대	39	37	-2
50대	40	37	-3
60대 이상	34	29	-5
전체	38	36	-2
북부	38	35	-3
남부	38	36	-3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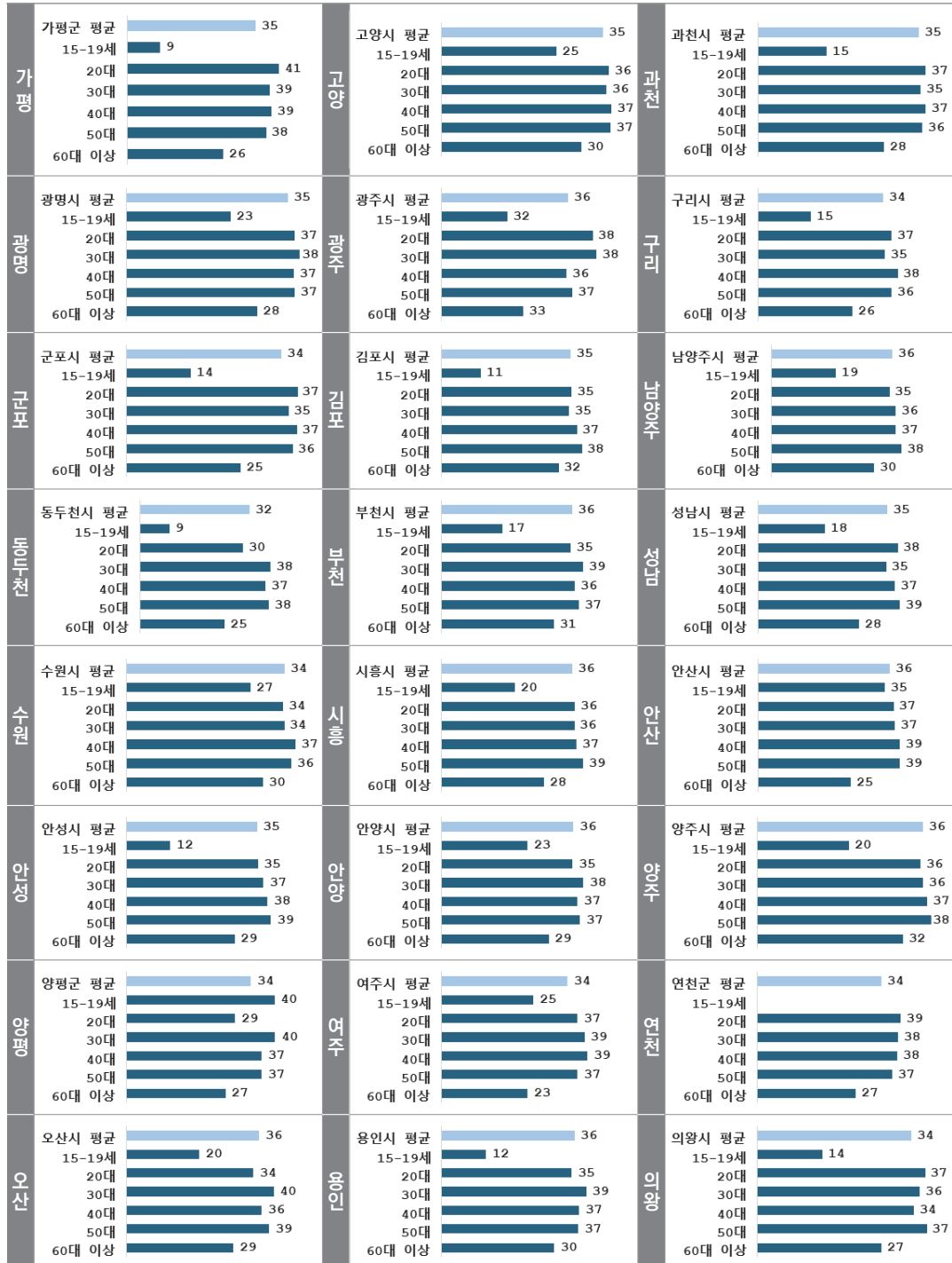
[그림 4-10] 경기 북부 및 남부 여성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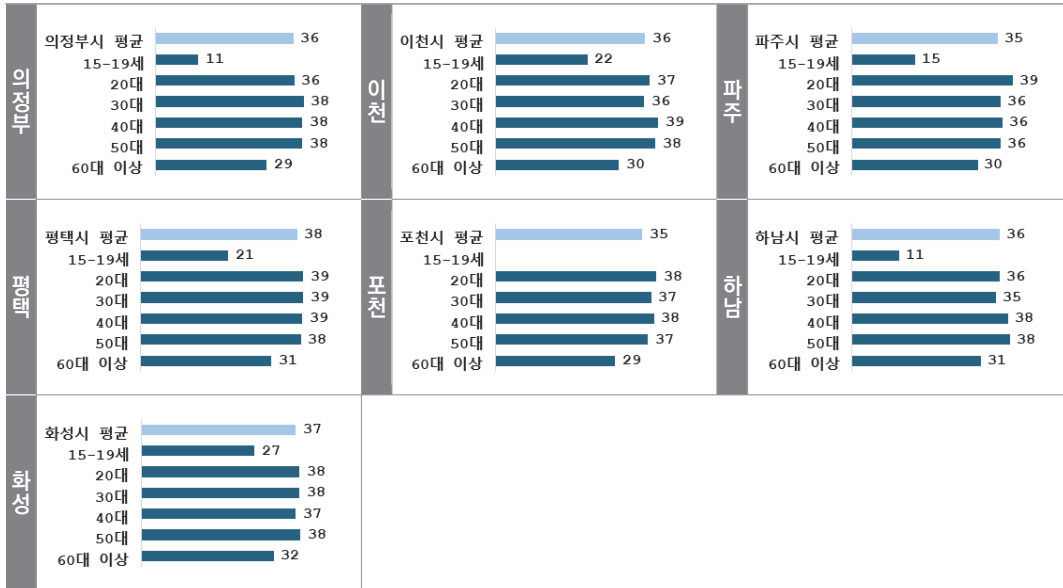
(단위: 시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11] 시군 연령별 여성 평균 근로시간(2025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2) 산업별 근로시간

- 산업별⁸로는 국제 및 외국기관(41시간)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은 39시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33시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은 평균과 유사한 36시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과 비교할 경우, 전체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시간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각각 5시간, 도·소매업과 농업·임업 및 어업은 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3시간,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은 각각 2시간 감소하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2시간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은 3시간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 종합하면, 2025년 경기도 여성의 산업별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30시간대 중반 수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길고, 숙박·음식점업 및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또한, 2016년과 비교할 때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⁸ 광업은 산업과 종사자 규모가 타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작아 해석대상 산업에서 제외하였다.

<표 4-10> 경기도 여성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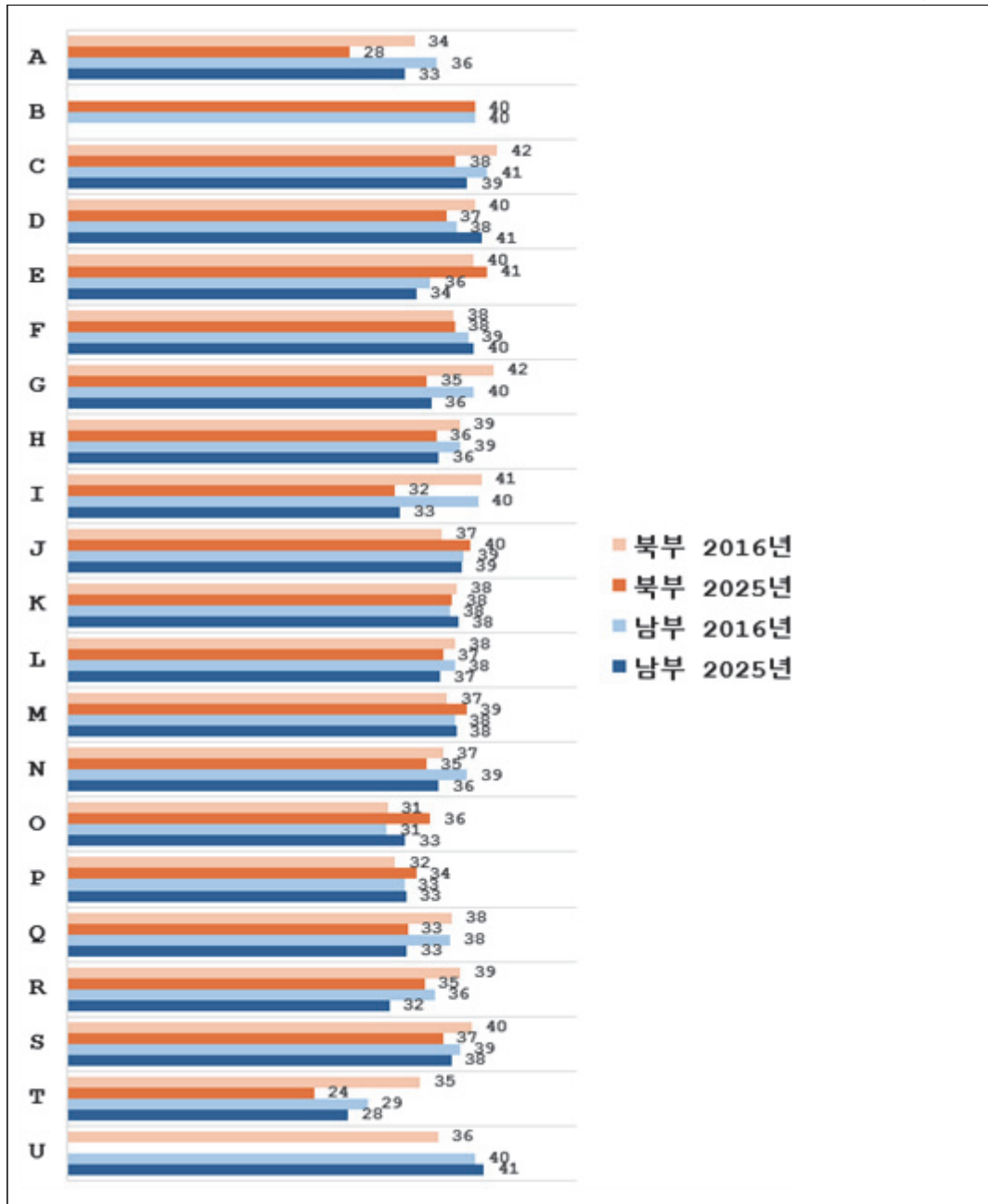
(단위: 시간)

여자	2016년	2025년	증감
	평균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	
농업, 임업 및 어업	35	31	-4
광업	40	40	0
제조업	41	39	-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8	40	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36	-1
건설업	39	39	0
도매 및 소매업	40	36	-4
운수 및 창고업	39	36	-3
숙박 및 음식점업	40	33	-7
정보통신업	38	39	1
금융 및 보험업	38	38	0
부동산업	38	37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	38	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9	36	-3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1	34	3
교육 서비스업	33	33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33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	33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	37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30	26	-4
국제 및 외국기관	38	41	3
전체	38	36	-2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12] 경기 북부 및 남부 여성 산업별 근로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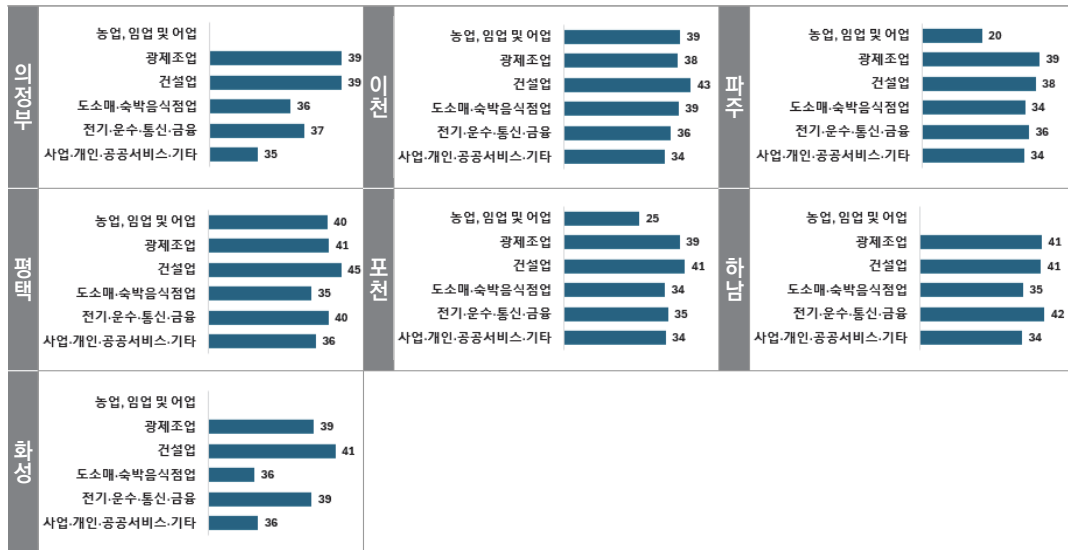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정보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

[그림 4-13] 경기도 시군 여성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3) 직종별 여성 근로시간

- 경기도 여성의 직종별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자(42.1시간), 가장 낮은 직종은 단순 노무 종사자(30.8시간)로 확인되었다.
 - 평균보다 높은 직종은 관리자(42.1시간),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40.9시간), 사무 종사자(38.0시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7.2시간),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7.2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 반면, 평균보다 낮은 직종은 단순 노무 종사자(30.8시간), 서비스 종사자(32.0시간), 판매 종사자(34.8시간) 등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근로시간은 38.3시간에서 35.5시간으로 약 2.8시간 감소하였다. 직종별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8.6시간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 역시 각각 6.6시간 감소하였다. 또한 판매 종사자(5.2시간),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4.9시간)에서도 감소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반면, 관리직은 3.7시간 증가하였고, 전문가 직종은 소폭 증가(0.3시간), 사무 종사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기준 여성의 직종별 근로시간은 직종 간 차이가 존재하며, 관리직 및 일부 생산직에서 상대적으로 길고, 서비스 및 단순노무 직종에서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대비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관리자와 전문가 직종에서는 소폭 증가하는 등 직종별 차이가 나타났다.

<표 4-11> 경기도 여성 직종별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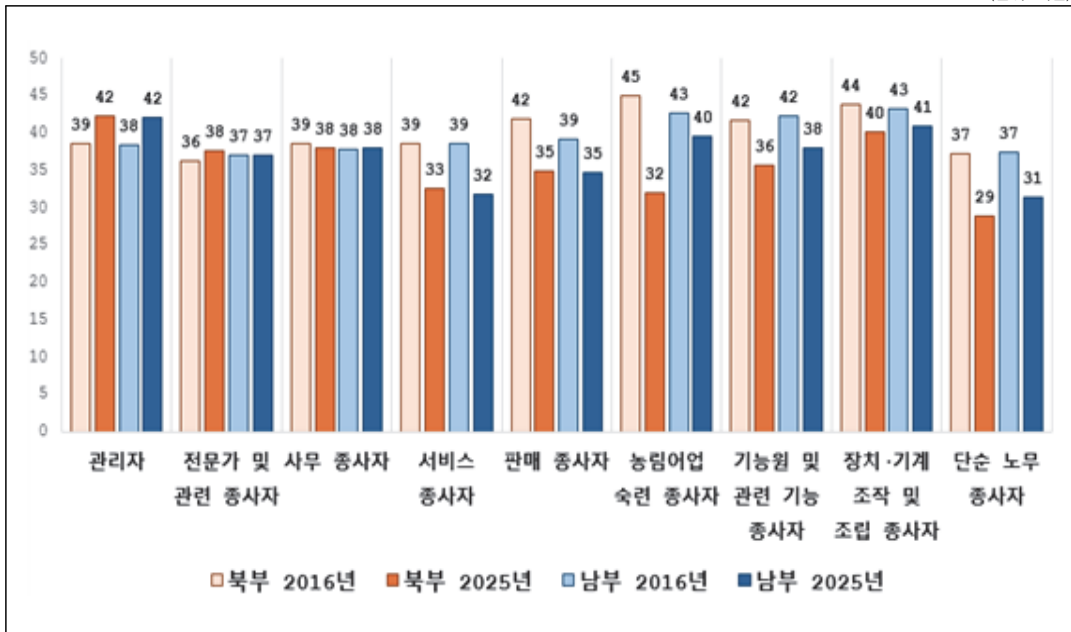
(단위: 시간)

여자	2016년	2025년	증감(시간)
	평균근로시간(시간)	평균근로시간(시간)	
관리자	38.4	42.1	3.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9	37.2	0.3
사무 종사자	38.0	38.0	0.0
서비스 종사자	38.6	32.0	-6.6
판매 종사자	40.0	34.8	-5.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4.1	35.5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1	37.2	-4.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3.3	40.9	-2.4
단순 노무 종사자	37.4	30.8	-6.6
전체	38.3	35.5	-2.8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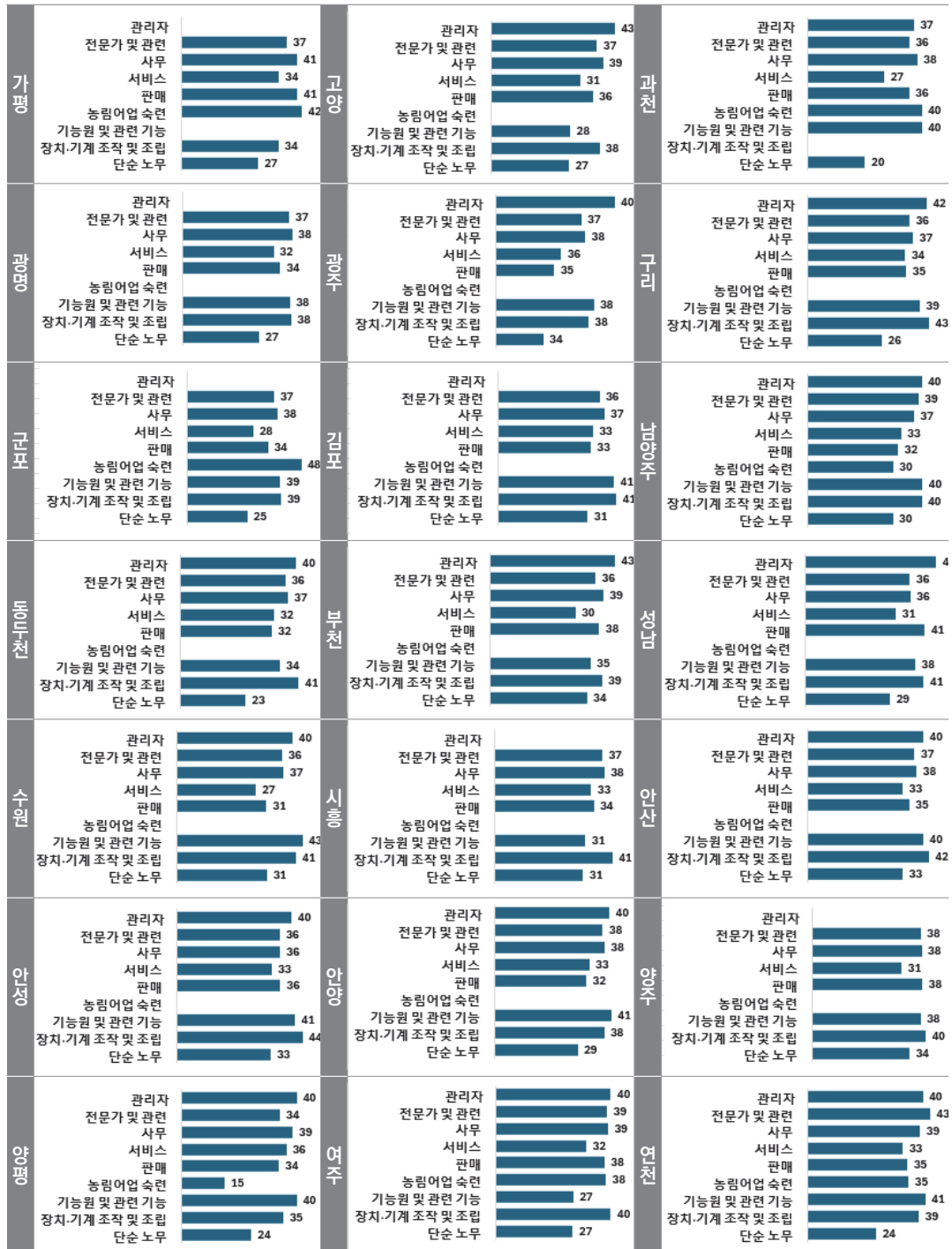
[그림 4-14] 경기 북부 및 남부 직종별 여성 평균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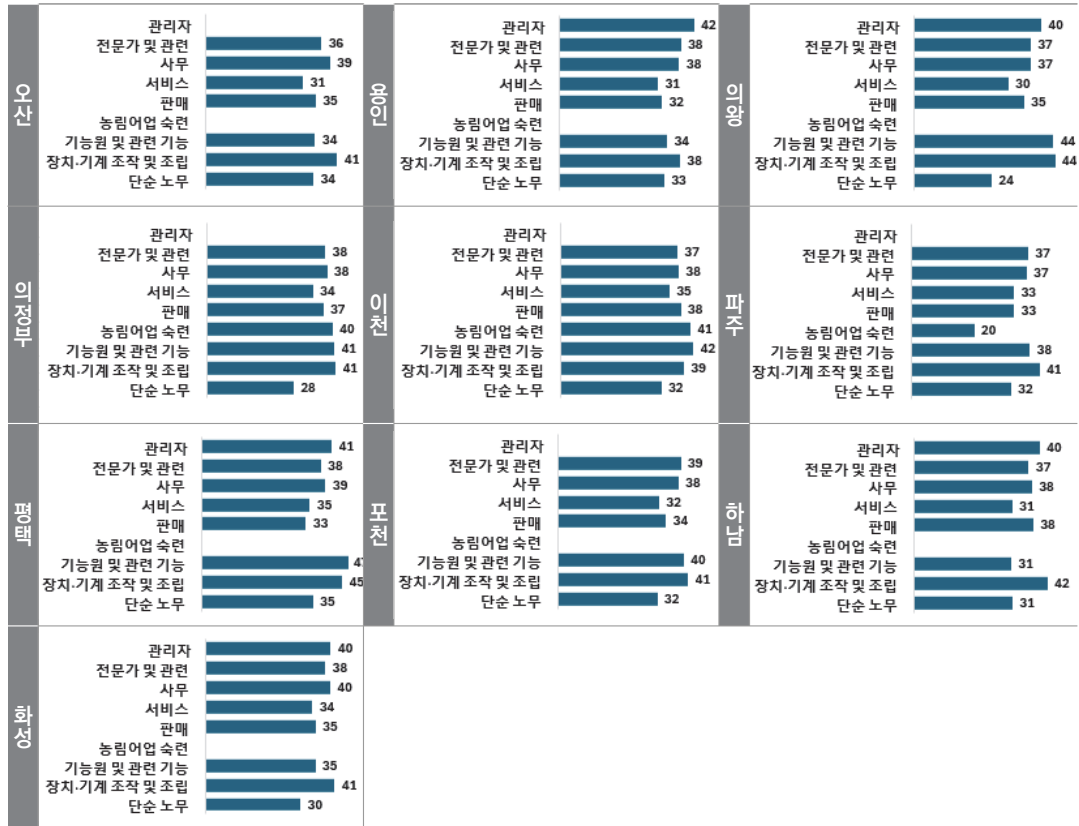
(단위: 시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15] 경기도 시군별 여성 직종별 평균 근로시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라. 여성 고용형태

- 2025년도 기준 경기도 여성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197.5만 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으며, 여성 임금근로자 중 약 7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시근로자 61.4만 명(22.9%), 일용근로자 9.9만 명(3.7%)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상용근로 중심의 고용 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상용근로자 규모가 각각 49.9만 명, 47.3만 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50대 역시 47.3만 명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0대 또한 상용근로자가 31.9만 명 나타나 주요 노동연령층(20~50대)에서 상용근로 중심 구조가 뚜렷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 노동연령층 여성의 임금근로가 상용근로 중심의 고용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임시근로자가 21.4만 명으로 상용근로자(20.6만 명)보다 많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차별적인 고용구조를 보였다. 또한, 15~19세 역시 임시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시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용근로자는 전 연령대에서 규모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특히 30~50대에서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과 비교할 경우, 전체 상용근로자는 130만 명에서 197.5만 명으로 증가하여 약 67.5만 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1.9%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52.9만 명에서 61.4만 명으로 증가하여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일용근로자는 11.7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감소(15.5%)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용근로자의 증가율이 임시근로자보다 높고, 일용근로자는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여성 고용구조가 점차 상용근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연령별로는 50대 상용근로자가 약 23.6만 명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대(15.4만 명)와 40대(13.0만 명)에서도 상용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40대와 50대에서도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50대의 임시·일용근로 감소와 상용근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점은 해당 연령층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25년 경기도 여성의 고용형태는 상용근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30~50대 핵심 노동연령층에서 상용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대비 상용근로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감소하여 여성 고용구조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2〉 경기도 여성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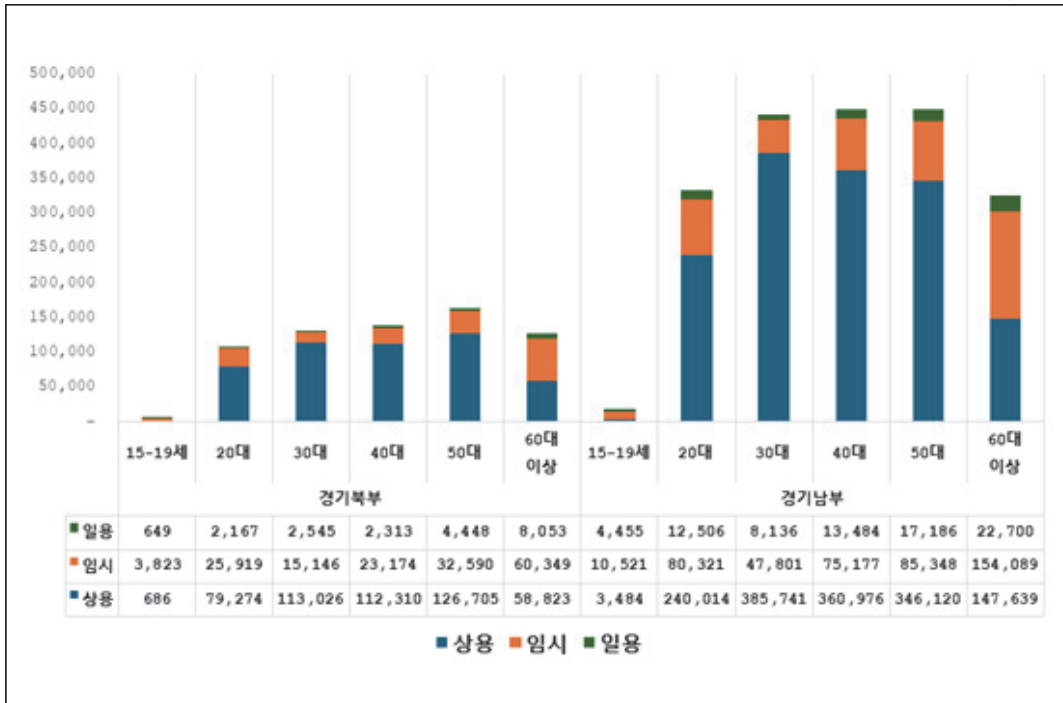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5년			증감			증감률(%)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15-19세	7,751	15,143	6,834	4,170	14,344	5,104	-3,581	-799	-1,730	-46.2	-5.3	-25.3
20대	321,246	85,483	17,968	319,288	106,240	14,673	-1,958	20,757	-3,295	-0.6	24.3	-18.3
30대	344,531	79,407	9,831	498,767	62,947	10,681	154,236	-16,459	850	44.8	-20.7	8.6
40대	343,403	148,552	25,204	473,287	98,351	15,796	129,883	-50,201	-9,408	37.8	-33.8	-37.3
50대	236,754	129,800	35,425	472,825	117,938	21,633	236,071	-11,862	-13,792	99.7	-9.1	-38.9
60대이상	46,423	71,408	21,446	206,462	214,437	30,753	160,038	143,028	9,307	344.7	200.3	43.4
전체	1,300,108	529,793	116,708	1,974,799	614,257	98,640	674,691	84,465	-18,068	51.9	15.9	-15.5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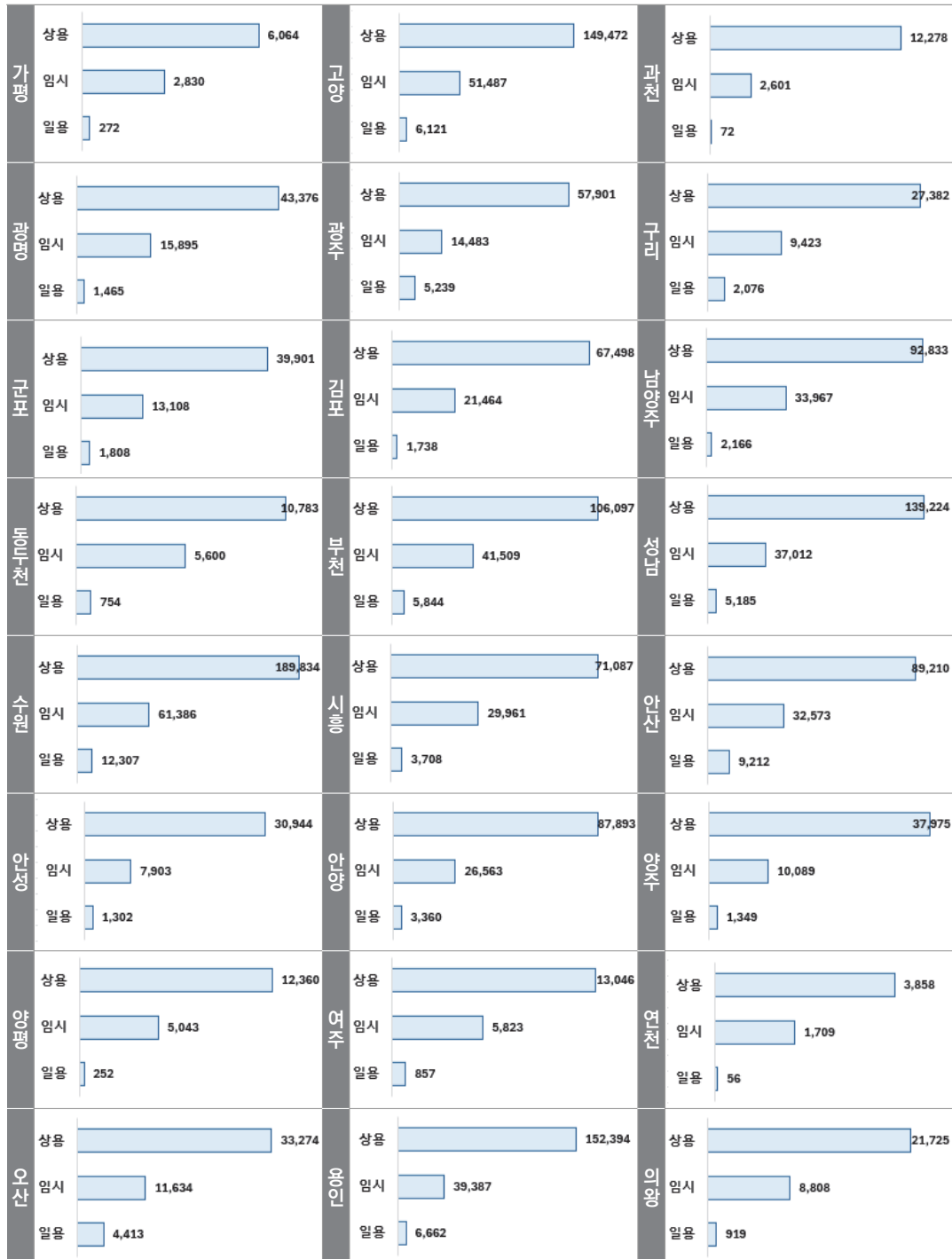
[그림 4-16] 경기 북부 및 남부 여성 고용형태(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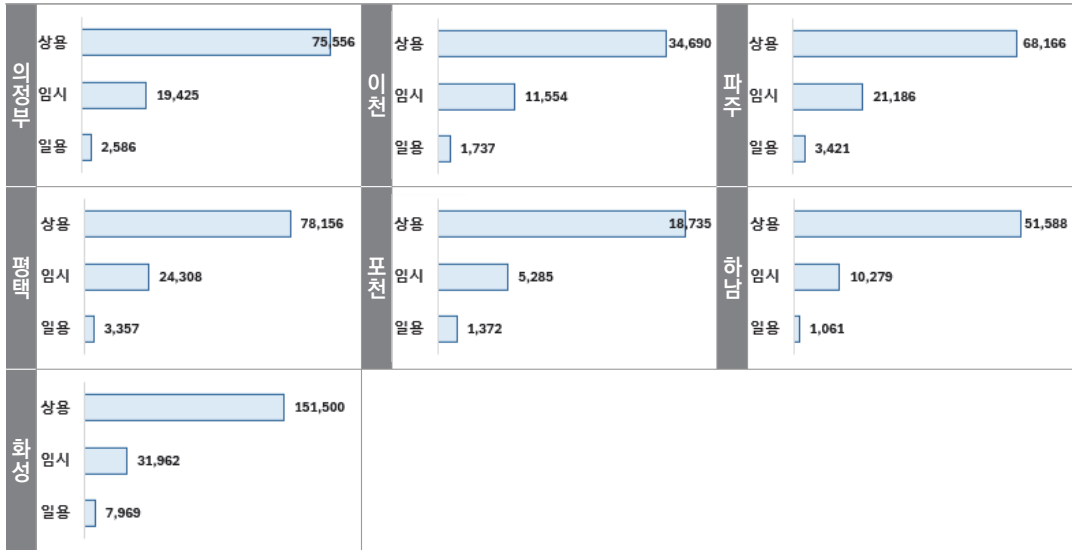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그림 4-17】 경기도 시군별 여성 취업자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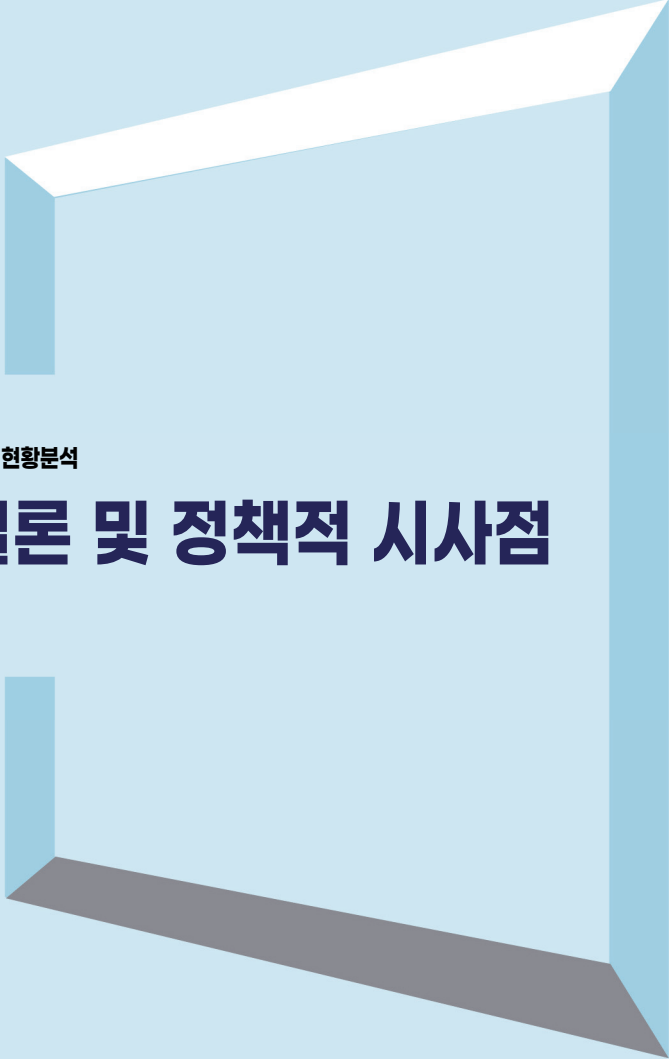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마. 소결

- 경기도 여성 노동시장은 경제활동참가와 취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직종·고용형태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전국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여성 취업자 또한 2016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문가·사무직 중심의 취업 확대와 함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여성 취업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 취업은 여전히 돌봄·서비스업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이직률이 나타나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 여성 고용형태는 전반적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등 안정성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력 단절 사유가 출산·결혼 중심에서 육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여성의 근로지속과 경력 유지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통근은 생활권 중심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돌봄 부담과 지역 기반 취업 특성이 여성 노동 시장 참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 정책 역시 단순 취업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여성의 지속근로와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의 고용 수준 향상과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전문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성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돌봄·서비스업 중심 여성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유연근무, 시간제·재택근무, 경력유지 지원 등 일·생활 균형 기반 정책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새일센터 역시 지역 산업구조와 여성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남부는 디지털·사무·전문서비스 분야 중심의 직업교육훈련과 경력형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북부는 제조업·돌봄·생활서비스 분야 중심의 현장 연계형 훈련과 취업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 취업 연계 중심에서 벗어나 취업 이후 고용 유지, 경력개발, 재취업 지원까지 연계하는 사후관리 기능 강화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중장년여성·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경기도 여성 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층 비중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6년 73.1%에서 2025년 69.5%로 하락하여, 향후 여성 노동공급 기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의 인구·가구 특성과 교육수준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일자리정책은 경력단절여성 중심의 재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여성, 미혼여성, 중장년·고령여성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경기도 노동시장은 서비스업 중심 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기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복합적 산업구조를 보인다. 여성 취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병행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성장산업에서도 취업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 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빈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이면서 빈 일자리와 높은 인력 이동이 함께 나타나는 분야로, 잦은 인력의 입직과 이직이 고용안정성 취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역시 여성 취업 비중이 높고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나타나는 분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제조업은 빈 일자리 규모가 크지만 입직과 이직 또한 활발하지 않아 산업 자체의 침체를 우려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 참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여성 진입이 가능한 직무 발굴과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여성 일자리정책은 ‘취업자 수 확대’ 중심에서 ‘지속근로와 경력형성’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여성 집중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인력 유지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업 연계 이후의 사후관리, 장기근속 지원, 직장 적응 지원, 근로조건 개선 연계 등이 여성 일자리사업의 주요 기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둘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청년여성에게는 디지털·전문서비스 분야 진입 지원,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재취업과 경력회복지원, 중장년 여성에게는 돌봄·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경력단절 사유가 결혼·출산 중심에서 육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육아기 지속근로, 유연근무 연계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여성의 생활권 중심 취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여성은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통근 비중이 높고 육아 부담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 특성을 보이고 있어, 광역 단위의 일자리 연계뿐 아니라 시군 단위 생활권 내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기업과의 협약 확대, 근거리 일자리 매칭, 시간제·유연근무 일자리 발굴 등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 남부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산업의 규모와 증가폭이 크고, 여성 취업자 규모도 북부보다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남부 지역의 직업훈련은 청년여성 및 경력전환 여성을 대상으로 디지털·전문서비스 분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초, AI 활용 사무행정,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기획, 온라인 플랫폼 운영, 회계·인사·총무 실무, 연구행정·프로젝트 관리, IT기업 사무지원, 전문서비스업 행정지원 등 전문사무 분야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북부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생활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북부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은 지역 내 실제 구인수요와 생활권 취업 가능성을 고려한 현장 연계형 과정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돌봄 코디네이터, 사회복지 행정실무, 병원·의료기관 행정지원 등 보건·사회서비스 분야와 제조업 품질관리 실무, 생산관리 사무지원, 물류·재고관리 등 제조업 지원직무 중심의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역기반 생활서비스 창업·취업 연계 과정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 분야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공통적으로는 여성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육아기 여성은 장시간 집합교육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 모듈형 과정, 온라인·혼합형 교육, 야간·주말 과정, 실습 집중형 과정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일센터는 훈련 개설 단계부터 지역 기업 수요조사, 협약기업 발굴, 수료 후 채용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종합하면, 향후 경기도 여성 일자리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뿐 아니라 고용안정성, 경력개발, 지역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 집중 산업의 일자리 질 개선, 성장 산업으로의 여성 진입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남부·북부 산업구조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새일센터는 단순 취업알선 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수요 기반의 여성 직업훈련 기획, 기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및 경력유지 지원을 수행하는 지역 여성고용 거점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인구 데이터)」

■ **집필진** 임 다 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연구위원
이 재 흥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연구원
김 민 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연구위원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분석

발행인 윤덕룡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경기도일자리재단
(1457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43
KB증권빌딩(심곡동) 2층
Tel. 031-970-9600 Fax. 031-270-9734
홈페이지: www.gjf.or.kr
편집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401호, 409호, 904호, 905호
Tel. 02-2672-1535
E-mail. yb1555@yeobaek.com
ISBN 979-11-24368-04-6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31-270-9600

재단 | <https://www.gjf.or.kr>

꿈날개 | <https://www.dream.go.kr/dream>

잡아바 | <https://www.jobaba.net>

꿈마루 | <https://www.dreammaru.or.kr>

